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삼척군·영월군·원주군·횡성군-

【결정사안】

1. 1949. 2.경~1951. 3.경 강원 남부지역 4개 군(삼척군·영월군·원주군·횡성군)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21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2.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희생사실은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본 위원회 신청사건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강원 남부지역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 2.경~1951. 3.경에 발생하였다. 사건의 실재 여부와 피해 여부 확인은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건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 시신을 목격했거나 시신수습 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이 존재할 경우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군경사건의 특성상 시신이 수습되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는 시신이 수습된 경우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 참고인 3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 28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8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2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19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희생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본 사건은 군경의 토벌작전과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제 3 권

살해된 사건이다. 희생자들 중에는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응의 대가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전쟁 전후 혼란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제헌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발효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 상태는 아니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경찰과 군인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본 사건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해자인 경우 1차 지휘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국군의 경우 토벌작전 및 해당지역 탈환 업무를 수행하던 지휘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군과 경찰의 폭력 행사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문]

【사 건】 다-9470, 등 22건,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신청인】 유옥연, 등 24명

【결정일】 2010. 6. 8.

[주 문]

- 다-9470 등 2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다-1063, 다-10147 등 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 접수 및 처리 과정

신청인 유옥연 등 24명은 2005. 12. 20.~2006. 11. 3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전후시기 강원도 삼척군, 영월군, 원주군, 횡성군 등 4개 군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20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¹⁾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제24차(2007. 1. 9.), 제25차(2007. 1. 23.)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20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으며,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서 조사개시된 사건 중 군경에 의한 피해사건으로 파악된 1건과²⁾ 군경에 의한 피해사건 중 개별사건으로 분리된 건을 포함하여³⁾ 총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⁴⁾

이상 진실규명 신청된 조사대상 사건 22건 중 동일한 시기 및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병합하여 총 17건을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조사결과 사건명은 집단희생사건의 경우 사건발생장소와 진실규명대상자 중 1인의 이름, 희생인원을 적시하여 ‘△△군 △△면 △△리 △△△ 등 △인 희생사건’으로 표현하였다.⁵⁾ 다만, 희생자들이 지서 등에 구금되어 있다가 여러 장소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

- 1) 본 결정서에서의 지명 및 행정구역은 한국전쟁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각주에 현 지명을 병기하였다. 다만,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정홍일 일가 희생사건(사건번호: 다-9420)의 경우 현 편입지역인 강원도 영월군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법률 제1172호(1963. 1. 1.)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와 덕구리가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으로 편입되었으며 대통령령 제6543호(1973. 7. 1.)로 상동면이 상동읍으로 승격됨]
한편, 본 결정서의 ‘△’기호는 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 예시(例示) 등에 사용하였고, ‘○’ 기호는 참고인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실명 처리한 것이다.
- 2) 진실규명신청사건 다-10504의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 권병오가 빨치산에게 끌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진실규명대상자가 국군에게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내용이 확인되어 집단희생조사국으로 이관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대의협력과-1380), 『진실규명신청서 재분류 배정』, 2009. 10. 6.
- 3) 진실규명신청사건 다-6838은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장소에 따라 다-6838과 다-6838(1)로 분리하였다.
- 4) 한편, 대표신청 다-6838(신청인: 강태용)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김수원’과 다-10506(신청인: 윤순희)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박근식’은 조사과정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로 밝혀졌다. 이에 사건을 분리, 적대세력사건의 분류기호인 ‘마’를 적시하여 마-6838(3), 마-10506(2)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삼척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2)’으로 별도의 결정서가 작성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조사1팀-365), 『조사개시 사건 분리 및 사건번호 재배정(다-6838·다-10506)』, 2010. 4. 28.; 진실화해위원회(조사1팀-443), 『사건번호 재배정(마-6838·마-10506)』, 2010. 5. 31.
- 5) 희생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등 △인’으로 표현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성명을 나열하였으나 진실규명대상자와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가 포함된 집단희생사건의 경우 희생된 진실규명대

제 3 권

되는 사건의 경우 최종 구급지를 사건명에 적시하고 희생장소는 사건내용에 서술하였다. 집단희생사건이지만 진실규명대상자가 1인이거나 개별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대상자가 1인일 경우에는 ‘△△군 △△면 △△리 △△△ 희생사건’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동일한 마을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희생당했을 경우 희생장소가 아닌 이들의 거주지를 사건명에 적시하였다.

〈표 1〉은 진실규명 신청사건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을 각 지역 및 사건이 발생한 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⁶⁾ 삼척군, 영월군, 원주군, 횡성군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출생연도	신청인과 거주지 의 관계			
삼척군										
1	다-9470	2006.11.30	유옥연 (柳玉蓮)	박우두만	남	미상	외숙부	삼척군 상장면 혈리	삼척군 상장면 혈리 박우두만 · 권병오 · 박근덕 희생사건	병합
2	다-10504	2006.11.30	권옥순 (權玉順)	권병오 (權炳五)	남	미상	부			
3	다-10506	2006.11.30	윤순희 (尹順熙)	박근덕	남	미상	마을주민			
4	다-6839	2006.11.15.	이경일 (李景日) 김분옥 (金粉玉) 엄기남 (嚴奇南)	김덕삼 (金德三) 엄계상 (嚴桂尙) -김덕삼의 처 김도철 (金道哲) -김도삼 한치상 (韓致相) -한맹철의 부 이상옥 (李相玉) -한맹철의 모 김순례 (金順禮) -한맹철의 처	남 여 남 남 여 여	1881 1890 1894 1889 1892 1918	마을주민 및 김분옥 의 숙부 (김덕삼)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 마을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	

상자의 수만 사건 제목에 적시하였다. 한편, 일가 희생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군 △△면 △△리 △△△ 일가 희생사건’으로 표현하였다.

6) 〈표 1〉의 진실규명대상자 명단은 참고인 진술조사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이에, 신청서 및 신청인 진술조사 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를 ‘△△△의 부’ 등 가족관계로 설명하거나 성명을 잘못 알고 있었을 경우 ‘-’ 기호에 그 내용을 병기하여 정리하였다.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출생연도	신청인과의 관계			거주지
4	다-6839		이경일 (李景日) 김분옥 (金粉玉) 엄기남 (嚴奇南)	김△주 (金△珠) -한맹철의 제수	여	1921	마을주민 및 김분옥 의 숙부 (김덕삼)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 마을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	
				△△△ -한맹철의 제수	여	미상				
				홍옥금 (洪玉金) -심순도의 모	여	1902				
5	다-6612	2006.11.8.	김원석 (金原錫)	김상범 (金常範)	남	1902	부	원덕면 장호리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김상범 희생사건	
6	다-4556	2006.7.31.	송대영 (宋大榮)	송은실 (宋銀實)	남	1932	형	하장면 역둔리	하장면 역둔리 송은실 희생사건	
7	다-10354	2006.11.30.	임병창 (林炳昌)	임연식 (林連植)	남	1929	부	노곡면 금계리	삼척군 근덕면 교곡리 임연식 희생사건	
8	다-8807	2006.11.30.	김부현 (金富炫)	김동형 (金東炯) -김도현	남	1924	형	원덕면 장호리		
9	다-6838(1)	2006.11.15.	강태웅 (姜泰鎔) 김일하 (金一河) 이경일	김옥이 (金玉伊) -원응숙의 모	여	1912	강태웅의 오촌이모	삼척읍 남양리	삼척읍 정라진항 김동 형·김옥이 희생사건	병합
10	다-6469	2006.11.2.	전준용 (全準龍)	전일영 (全一瑛)	남	1923	부			
11	다-8808	2006.11.30.	정석연 (鄭碩連)	정귀연 (鄭貴然)	남	1915	형	원덕면 용화리		다- 6838 중복 신청
12	다-6838	2006.11.15.	강태웅 김일하 이경일	김진만 (金鎭萬)	남	1917	마을주민 및 김일하 의 숙부 (김진만)	원덕면 용화리	삼척군 근덕면 근덕지서 김진만 등 7인 희생사건	
				김봉하 (金鳳河)	남	1920				
				이오봉 (李五鳳)	남	1926				
				윤옥출 (尹玉出) -최길수의 모	여	1915				
				전순덕 (全舜德)	남	1915				
				정귀연 (鄭貴然)	남	1915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출생연도	신청인과의 관계	거주지		
영월군										
13	다-9420	2006.11.30.	허순화 (許順花)	정홍일 (丁洪一)	남	1897	외조부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정홍일 일가 희생사건	
				김동굴 (金東屈)	여	1900	외조모			
				정춘식 (丁春植)	남	1930	외숙부			
14	다-6240	2006.10.25.	이한규 (李漢圭)	이태인 (李泰仁)	남	1905	부	서면 후탄리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태인 희생사건	
15	다-7924	2006.11.27.	김우진 (金禹鎭)	김수규 (金壽圭)	남	1894	부	수주면 무릉리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김수규 희생사건	
16	다-2878	2006.4.10.	엄태흥 (嚴泰興)	엄창현 (嚴昌鉉)	남	1916	부	수주면 강림리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엄창현 희생사건	
원주군										
17	다-10147	2006.11.30.	김용재 (金容在)	김영철 (金永澈)	남	1909	부	판부면 서곡리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김영철 희생사건	
18	다-235	2005.12.20.	최재익 (崔在翼)	최병남 (崔炳南)	남	1904	양부	원주군 문막면 문막리	원주군 문막면 문막지서 최병남 일가 희생사건	
				김보배 (米上)	여	1920	숙모			
19	다-10632	2006.11.30.	손상훈 (孫相勳)	손어봉 (孫魚鳳)	남	1908	부	원주읍 단계동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손어봉 부자 희생사건	
				손상룡 (孫相龍)	남	1933	형			
20	다-1063	2006.2.10.	신승철 (辛承轍)	신학준 (辛鶴俊)	남	1898	백부	원주읍 봉산동	원주군 원주읍 봉산동 신학준 일가 희생사건	
				김경준 (金瓊俊)	여	1895	백모			
				신성준 (辛性俊)	남	1906	부			
횡성군										
21	다-379	2005.12.30.	임정섭 (林正燮)	임상옥 (林相玉)	남	1920	부	서원면 옥계리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임상옥 희생사건	
22	다-9406	2006.11.30.	정창화 (鄭昌和)	정원영 (鄭元永)	남	미상	부	청일면 유평리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정원영 희생사건	

나. 신청내용

신청인 유옥연 등 24명은 한국전쟁 전후시기 강원도 삼척군, 영월군, 원주군, 횡성군 등 4개 군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신청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진실규명대상자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표 2〉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와 신청인 진술조서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⁷⁾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삼척군					
1	다-9470	삼척군 상장면 혈리 박우두만·권병오·박 근덕 희생사건	유옥연 (여, 7세)	희생목적	• 1950. 3.경 상장면 혈리 당골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외숙부 박우두만이 천명국민학교(현재, 공군 비행장)에서 군인에게 총살당했음.
2	다-10504		권옥순 (여, 12세)	연행목적	• 1950. 3.경 상장면 혈리 촌시리골에 거주하며 마을 반장일을 하던 신청인의 부친 권병오가 빨치산이 식량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다 끌려 갔음.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군경희생으로 판단된 사건임.
3	다-10506		윤순희 (여, 6세)	전문 (모친)	• 1950. 3.~4.경 상장면 혈리에 거주하던 마을주민 박근덕이 큰연재기(연작)골로 빨치산의 집을 실어다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끌려가 북삼국민학교에서 총살당했음.
4	다-6839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	이경일 (남, 1963년생) 김분옥 (여, 24세) 엄기남 (여, 13세)	전문 및 총성 들음 (엄기남)	• 1950. 9. 11.(음력 7. 그믐)경,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을에 거주하던 신청인 김분옥의 숙부모 김덕삼·엄계상 부부와 김도철(이명, 김도삼), 한치상·이상옥 부부, 김순례와 한맹철의 제수 2명, 홍옥금, 성명 미상자 등 11명이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백골부대 군인에 의해 총살당했음.
5	다-6612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김상범 희생사건	김원석 (남, 5세)	전문 (모친)	• 1950. 9. 27.(음 8. 16.) 원덕면 장호리에 거주하며 한약방을 경영하던 신청인의 부친 김상범이 인민군 점령기에 장호리 인민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불상의 육군헌병에게 총살당했음. • 제사일: 음력 8. 16.
6	다-4556	삼척군 하장면 역둔리 송은실 희생사건	송대영 (남, 18세)	전문 (마을주민)	• 1950. 가을경, 하장면 역둔리에 거주하며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신청인의 형 송은실이 군인에게 희생당했음.

7) 본 결정서에서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제적등본 상 나이를 기재하였으며, 신청인 및 참고인의 경우 제적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닌 진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나이를 기재하였다.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7	다-10354	삼척군 근덕면 교곡리 임연식 희생사건	임병창 (남, 1950년생)	전문 (모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1. 22.(음력 10. 13.) 노곡면 금계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신청인의 부친 임연식이 금계리 짐막골에 피신하고 있던 부역혐의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노곡지사로 자진출두한 후 드림재에서 10여 명과 함께 노곡지서 경찰에게 집단으로 총살당했음. • 제사일: 음력 10. 12.(지서 출두 전날)
8	다-8807		김부현 (남, 25세)	전문 (부모님· 마을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수복 후, 원덕면 장호리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신청인의 형 김동형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국군선발대에 의해 정라지서로 끌려가 20여 명과 구금되어 있다가 정라진항에서 집단으로 총살·수장당했음.
9	다-6838(1)	삼척군 삼척읍 정라진항 김동형·김옥이 희생사건	강태용 (남, 12세) 김일하 (남, 20세) 이경일 (남, 1963년생)	전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수복 후, 삼척읍 남양리 통베기에 거주하던 신청인 강태용의 오촌이도 김옥이가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위원회(또는 여성동맹)의 부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정라지서로 끌려간 후 정라진항 앞 바다에서 집단희생당했음.
10	다-6469		전준용 (남, 4세)	전문 (모친·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 1.경 원덕면 용화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신청인의 부친 전일영이 수복 전후(1950. 8.~9.경)인민군에게 길 안내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근덕면사무소(현) 인근 농협창고로 끌려가 100~150여 명과 함께 구금되어 있다가 15일여 후, 맹방 백사장에서 집단희생당했음. • 제사일: 음력 12. 2.
11	다-8808	삼척군 근덕면 근덕지서 김진만 등 7인 희생사건	정석연 (남, 25세)	전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2.경(1·4 후퇴 직전) 원덕면 용화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신청인의 형 정귀연이 인민군 점령기에 용화리 인민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근덕지서로 끌려가 구금되어 있다가 근덕면 광태리 팔송정 뒷산에서 경찰에게 집단으로 총살 당했음. • 제사일: 음력 11. 3.
12	다-6838		강태용 (남, 12세) 김일하 (남, 20세) 이경일 (남, 1963년생)	전문 (마을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2. 11.(음력 11. 3.)경, 신청인 김일하의 숙부 김진만은 근덕면 광태리 팔송정 앞산에서 희생당했음. • 1950. 12. 말경(1·4 후퇴 직전), 원덕면 용화리에 거주하던 김봉하, 이오봉, 윤옥출, 전순덕, 정귀연, 성명 미상자 등 10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근덕지서 인근 창고에 구금된 후 맹방백사장에서 수십여 명과 함께 집단희생 당했음.
영월군					
13	다-9240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정홍일 일가 희생사건	허순화 (여, 1962년 출생)	전문 (모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이전, 춘양면 천평리 고무리골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외조부 정홍일, 외조모 김동굴이 군인에게 총살당했으며 외숙부 정춘식은 군인에게 끌려갔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14	다-6240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태인 희생사건	이한규 (남, 4세)	전문 (모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0. 26.(음력 9. 16.) 서면 후탄리 연정마을에 거주하며 농사 및 목수일을 하던 신청인의 부친 이태인(이명, 이영하)이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수주지서 또는 쌍용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장릉 부근에서 수 백명과 함께 집단희생당했음. 당시, 복쌍리 들골 목서방과 안영길도 함께 끌려갔으며, 영월중학교 뒤 속골에서도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음. ○제사일: 음력 9. 16.(지서 연행일)
15	다-7924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김수규 희생사건	김우진 (남, 27세)	전문 (모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0. 말경 수주면 무릉리 아리골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신청인의 부친 김수규가 인민군 점령기에 무릉리 아리골의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주지서(도원리 위치)에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장소 불상에서 희생당했음.
16	다-2878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엄창현 희생사건	엄태홍 (남, 15세)	연행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1. 24.(음력 10. 15.)경 수주면 강림리에 거주하며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의 부친 엄창현이 인민군 점령기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용경찰 에 의해 송중철(생환), 정진영(생환) 등과 강림지서로 연행되었으며 황성경찰서로 이송된 후 희생당했음. • 강림리 2구 인민위원장 허정이 지서에 연행된 후 희생당했으며 박△△가 강림리 1구 구장을 했다는 이유로 고둔치 고개에서 총살되었음. ○제사일: 음력 10. 18.(연행 후 3일째)

원주군

17	다-10147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김영철 희생사건	김용재 (남, 17세)	자진출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2.경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에 거주하며 산판일을 했던 신청인의 부친 김영철이 인민군 점령기에 반장을 했다는 이유로 판부지서로 불려간 후 생환하지 못했음. 수복 직후에도 여러 차례 불려가 구금 후 석방된 바 있음.
18	다-235	원주군 문막면 문막지서 최병남 일가 희생사건	최재익 (남, 20세)	전문 (조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2. 말경 문막면 문막리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양부 최병남과 숙모 김보배가 최병남의 동생 최병욱의 월북과 김보배의 부역혐의로 문막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지서 구금자들과 함께 집단희생되었음.
19	다-10632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손어봉 부자 희생사건	손상훈 (남, 12세)	자진 출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추수가 끝날 무렵, 원주읍 단계동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부친 손어봉(이명, 손영구)과 형 손상룡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희생당했음. ○ 1.4후퇴 시 판부면 가리파재와 양안치재에서 집단희생이 발생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
20	다-1063	원주군 원주읍 봉산동 신학준 일가 희생사건	신승철 (남, 19세)	전문 (마을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수복 후, 원주읍 봉산동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백부 신학준, 백모 김경준, 부친 신성준이 인민군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원주경찰서 경찰에 연행되어 장소 불상에서 희생당했음.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황성군					
21	다-379	황성군 서월면 옥계리 임상옥 희생사건	임정섭 (남, 7세)	전문 (조모)	○1950. 11. 초, 서월면 옥계리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부친 임상옥이 인민군 점령기에 옥계리 마을 반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대원에게 끌려가 총포 음성 방향에서 목격된 후 생환하지 못함. ○제사일: 음력 10, 15.
22	다-9406	황성군 청일면 유평리 정원영 희생사건	정창화 (남, 10세)	희생목적	○1951. 봄(2차 수복 후), 청일면 유평리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부친 정원영은 국군이 머느리 돌과 손녀딸을 데려가 부대 일을 시킨다고 하여 거절하고 부인을 대신 보냈는데, 이후 군인이 다시 찾아와 젊은 여성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을 거절하자 군인이 양다리에 총을 난사하여 익일 사망함.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제3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이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사건발생시기, 장소, 희생규모,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와 가해주체 및 가해의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본 사건의 진실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규명대상사건의 발생시기, 장소 및 희생규모를 규명한다.

둘째,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를 규명한다.

셋째, 진실규명대상사건의 가해주체, 희생이유 및 불법성 여부를 규명한다.

4. 조사방법

사건조사를 위해 관련 문헌자료와 기관 소장 자료를 검토했으며, 신청인과 참고인 진

술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가. 문헌자료 조사

문헌자료는 한국전쟁 관련 논문 등 선행 연구, 군사 및 경찰사, 지역사 등을 검토하였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재판기록 등을 확인했다.

첫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선행 연구인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하였나」⁸⁾ 등을 검토하였고, 군경의 이동경로와 민간인 희생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쟁사』,⁹⁾ 『오투기약사』,¹⁰⁾ 『청성역사』,¹¹⁾ 『오투기역사』,¹²⁾ 『백골사단역사』,¹³⁾ 『영광의 서곡』,¹⁴⁾ 『한국경찰사Ⅱ』,¹⁵⁾ 『공비토벌사』¹⁶⁾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또한 『강원도사』,¹⁷⁾ 『영월군지』,¹⁸⁾ 『삼척시지』,¹⁹⁾ 『문막읍사』,²⁰⁾ 등의 향토사 문헌들은 한국전쟁 전후 각 지역의 정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실시한 「기초사실조사」²¹⁾ 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다른 군경희생사건을 검토하였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참고인이 언급한 추가 피해자들의 제적등본을 각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입수하여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판결문을 검색하여 사건 관련 유무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6·25사변 피살자 명부』,²²⁾ 『6·25 사변 피납치자 명부』,²³⁾ 『월북자 명부』²⁴⁾

8)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하였나」, 『역사비평』 1990 여름호.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1971.

10) 보병 제8사단, 『오투기 약사(제1집)』, 1969.

11) 보병 제6사단, 『청성역사』, 1978.

12) 보병 제8사단, 『오투기역사』, 1980.

13) 보병 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1980.

14) 강원도경찰국, 『영광의 서곡(강원경찰전사 제1집)』, 1952.

15)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Ⅱ』, 1973.

16) 육군본부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17) 강원도사 편찬위원회, 『강원도사(현대편)』, 1996.

18) 강원향토사연구회, 『영월군지』, 1992.

19) 강원도 삼척시청, 『삼척시지』, 1997.

20) 문막읍사 편찬위원회, 『문막읍사』, 2003.

21) 진실화해위원회, 「기초사실조사 (태백·횡성·영월·인제)」, 2008; 진실화해위원회, 「기초사실조사 (삼척 1·2)」, 2009; 진실화해위원회, 「기초사실조사 (봉화1·2)」, 2009.

22)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 4권(6·25事變 被殺者 名簿 基四)』, 1952. 이 명부에는 피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적,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3) 공보처 통계국,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1권(6·25事變 被拉致者 名簿 第2卷 中 1號)』, 1954. 이 명부에는 피납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일, 피납장소, 피납현황, 당시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4) 공보처 통계국, 『월북자 명부』, 1951. 국가기록원에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있던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이다. 월북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월북일, 경력, 당별, 주소, 본적이 기재되어 있다.

에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각 지역 경찰서 소장자료 조사결과 영월경찰서에 부역혐의자 처리와 관련된 『현존사실조사서』와 『현존연명부』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비밀자료 대외 유출 불가를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으며²⁵⁾ 삼척, 영월, 봉화, 원주경찰서에 요청한 보안기록²⁶⁾ 조회도 이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²⁷⁾

나.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실재 여부,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 및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상황 등을 확인하였다.²⁸⁾

참고인은 신청인이 추천한 참고인을 비롯하여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자,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거주한 1920~1940년대 출생자 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를 선별하여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당시의 지역상황 및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찰 출신의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조사도 실시하였다.

특히, 희생자의 연행·구금·희생·시신수습 등의 과정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조사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직접 전해 듣거나, 제사일이나 생일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개인사와 관련된 기억을 갖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조사결과에 반영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참고인 진술을 우선시하되, 사건 현장 또는 연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수습한 신청인의 진술은 전문 참고인의 진술보다 우선시하였고, 특히 문헌자료가 없는 경우에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한편, 진실규명 신청사건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피해자 및 피해사건도 본 결정서에 포

25) 진실화해위원회(조사1팀-298), 「영월경찰서 생산기록 사본 제공 협조요청」, 2009. 4. 12.; 영월경찰서(정보보안과-1020), 「영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보안기록 조회의뢰 및 생산기록 사본제공 협조요청 건에 대한 회신」, 2010. 4. 19.

26) 보안기록에는 경찰이 작성한 보안 또는 대공관련 개인별 신원자료로 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원적, 본적, 주소, 생년월일)과 대공신원상 특이 사항(부역 및 처형 내용과 주체)이 기재되어 있다.

27) 횡성경찰서는 진실규명대상자의 보안기록 조회 결과 이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횡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보안기록 조회 의뢰」, 2010. 4. 12.(조사1팀-304); 횡성경찰서, 「횡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보안기록 조회 회보」, 2010. 4. 16.(정보보안과-1011)

28)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형태는 진술조서, 진술녹취로 구분하였다. 진술조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7호, 제18호의 서식(조사대상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다. 진술녹취는 같은 규칙 제19호 서식(녹음·녹화 동의서)을 작성한 후 녹음된 음성 중 주요 내용을 글로 바꾼 문서이다.

함하였다.

〈표 3〉은 사건 조사결과에 반영한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29) 〈표 4〉는 경찰 출신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삼척군							
1	삼척군 상장면 혈리 박우두만·권병오·박근덕 희생사건 (다-9470, 박우두만) (다-10504, 권병오) (다-10506, 박근덕)	윤○○ (여, 6세)	상장면 혈리	희생목격 및 전문 (어머니·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22.)	<p>▶다-97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당골 거주, 40~45세, 소금장수 •사건시기: 1950. 3.~4.경 •사건장소: 혈리국민학교 분교 •사건내용: 군인이 학교에서 총살했음. •피해이유: 박우두만이 군인 차가 온다는 것을 마을청년들에게 알려주어 빨치산에게 짐을 지어 다줬던 청년들이 도망감. •가해자: 백호부대 군인 •시신수습: 유순돌과 동네주민이 수습함. <p>▶다-105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촌살이골 거주, 35세가량, 반장 •사건시기: 1950. 3.~4.경 •사건장소: 곡넘이재 •사건내용: 빨치산의 강압으로 구마동으로 곡식집을 지어주고 오는 길에 군인에게 붙잡혀 곡넘이재로 끌려간 후 행적을 알 수 없음. •피해이유: 빨치산에게 짐을 지어다 줌.

29) 참고인의 사건인지 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표현하였다. 참고인이 피해자가 끌려가는 과정을 목격한 경우에는 '연행목격'으로, 피해자가 구금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구금목격'으로, 피해자가 희생당하는 과정을 목격한 경우에는 '희생목격'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참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한 경우에는 '시신수습'으로, 시신을 목격한 경우에는 '시신목격'으로 표현하였다. 이 밖에 참고인 본인이 직접 경험 또는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가족 및 마을주민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거나 또는 후일 가족 및 마을주민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어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문'으로 표현하였다.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1	삼척군 상장면 혈리 박우두만·권병오·박근덕 희생사건 (다-9470, 박우두만) (다-10504, 권병오) (다-10506, 박근덕)	윤○○ (여, 6세)	상장면 혈리	희생목적 및 전문 (어머니·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백호부대 군인 기타 - 전쟁 발발 2~3개월 전 큰연재기(연작)골에 빨치산들이 구덩이를 파고 지내며 밤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 곡식 등을 요구하여 날라 주었음. 참고인의 외숙부도 그들에게 구타당해 골병이 들었음. - 개울 사이로 삼척군과 봉화군이 나뉠. 	
		정○○ (여, 12세)	상장면 혈리 천평	희생목적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9740 인적사항: 당골 거주 사건시기: 1950. 3.(음력 2.)경 사건내용: 천평국민학교 마당에서 2발의 총알을 맞고 희생당했는데, 총살 이전에 참고인이 사자밥을 치려다 줌. 가해자: 국군 시신수습: 군인이 수습함. 기타: 군인들이 학교에 마을주민을 데리고 가서 구타하였으며, 철수할 때 마을주민 20여 명을 태백 새길재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이후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음. 	
2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 (다-6839, 김덕삼, 엄계상, 김도철, 한치상, 이상옥, 김순례, 김스주, 한맹철 제수, 홍옥금)	김○○ (여, 24세)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 마을	전문 (마을주민)	김덕삼의 조카 및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시기: 1950. 전쟁 당시 사건내용: 김덕삼, 김도삼, 한맹철의 부모, 한맹철의 제수 2명, 심순도 어머니가 국군에 의해 총살되었고, 한맹철의 부인은 익사함. 김흥묵은 시숙부로 산에 있던 빨치산에 의해 희생됨. 이에 총 7명이 군인에 의해 마을 앞산에서 총살됨. 피해이유: 피해자의 가족인 한맹철, 심순도 등이 빨치산이었음. 시신수습: 수습되었을 것이나 보지 못함. 	
		이○○ (여, 22세)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 마을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시기: 1950. 추석 직전 사건장소: 덕풍리 앞산 구덩이 사건내용: 한맹철의 부모, 부인, 한맹철의 제수 등 10명이 백골부대(백호부대)에게 덕풍마을 앞산 구덩이에서 총살됨.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2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 (다-6839, 김덕삼, 엄 계상, 김도철, 한치상, 이상옥, 김순례, 김스주, 한맹철 제수, 홍옥금)	이○○ (여, 22세)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 마을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이유: 한맹철이 빨치산으로 활동함. 이에, 가족들도 경찰 등에 끌려가 한맹철의 행방에 대한 조사를 받았음. 나머지 마을주민의 희생이유는 알지 못함. 시신수습: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음 가해자: 군인은 1개 소대였으며, 밥을 해주었음. 기타: 10. 1. (음 8. 20.) 군인이 소개령을 내려 풍곡리로 피난함.
		엄○○ (여, 13세)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 마을	총성 들음 및 전문 (부모님)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덕삼: 본처, 후처 아들 2형제 내외와 덕풍마을에 거주함. 부유했음. 김도삼: 김덕삼의 동생으로 아들이 셋 있었음. 한맹철: 부모를 모시고 아들 형제와 함께 거주함. 사건시기: 1950. 8.(음 7.) 사건내용: 덕풍마을 앞산에서 김덕삼과 김도삼은 총살당했으며, 김덕삼의 부인은 군인의 방화로 소사하였음. 한맹철의 부모, 제수 2명이 총살당했으며, 한맹철의 부인은 군인이 쫓아오는 것을 피하려다 익사함. 심순도의 모친이 총살당했으며, 이들의 집도 방화되었음. 피해이유: 김덕삼의 아들, 한맹철, 심씨형제, 즉 피해자의 가족이 입산자(빨치산)이었음. 가해자: 백골부대 시신수습: 김덕삼 부부, 김도삼, 한맹철의 부모와 제수는 수습해 묘를 썼음.
		박○○ (남, 51세)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전문	박종손의 8촌	진술조서 (201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곡리 오모재 거주, 박종손: 30세 미만 사건시기: 1950. 가을경(인민군 퇴각기: 본 사건 직후 참고인은 인민군에게 짐꾼으로 끌려갔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2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 (다-6839, 김덕삼, 엄계상, 김도철, 한치상, 이상옥, 김순례, 김스주, 한맹철 제수, 홍옥금)	박○○ (남, 51세)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전문	박종손의 8촌	진술조서 (201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미신청자 박종손, 박종손의 부모, 형수 이상 4명은 입산자(박종손의 형 박종태가 빨치산으로 활동함)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저지서에 불려 다닌바 있으며 풍곡리 (현)풍곡교회 뒤에서 총살당함. • 가해자: 백골부대 	
3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김상범 희생사건 (다-6612, 김상범)	김○○ (여, 31세)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명 김은호 • 사건시기: 1950. 9. 28.(음 8. 17.) 저녁 • 사건내용: 마을에 입성한 헌병에게 총 3발을 맞고 희생당했음. • 피해이유: 피난하지 못하고 마을에 머물러 있다가 인민위원장직을 맡음. • 시신수습: 옆집 할아버지가 수습함. • 가해자: 국군 헌병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당일 저녁 무렵 국군선발대가 트럭 여러 대를 타고 마을에 진입하였으며, 밤이 되자 삼척경찰들이 마을에 진입하여 삼척경찰서 경찰 20여 명이 장호리에 들어와 2~3일간 밥을 해줌. - 용화리 웃골에서 수복 후 다수의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고 들었음. 	
		최○○ (남, 13세)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전문 (아버지)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기: 1950. 수복 직후 • 사건내용: 국군이 선발대로 마을에 입성한 날 완장을 차고 하얀색 철모를 쓴 헌병에게 마을 골목길에서 총살당함. • 피해이유: 인민군 점령기에 장호리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함. • 기타: 당시 자위대 대장을 했던 김스△도 비슷한 시기 경찰에 연행되어 삼척경찰서로 이송된 후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강○○ (남, 12세)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전문 (어머니)	5촌조카	진술조서 (2008.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기: 1950. 수복 후 • 사건내용: 동네 골목길에서 헌병에게 총살당함. • 피해이유: 인민군 점령기에 장호리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함.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3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김상범 희생사건 (다-6612, 김상범)	남○○ (남, 13세)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전문 (마을주민 ·형)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장호리 인민위원장 •사건시기: 1950. 수복 직후 •사건내용: 은신하고 있던 중 군인에게 발각되어 총살당함. 	
4	삼척군 하장면 역둔리 송은실 희생사건 (다-4556, 송은실)	김○○ (여, 16세)	삼척군 하장면 역둔리	전문 (마을주민 · 시아머니)	마을주민 (제수)	진술조서 (2008.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시기: 1950. 가을경 •사건내용: 송은실이 역둔리 장거리에서군인에게 총살당해 그의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는 것을 목격함. •시신수습: 한태골에 매장했다는 소문만 들었으나 묘는 알지 못함. •제사알: 설, 추석 •가해자: 군인 •희생규모: 동네주민 여러 명이 희생당했다고 전해 들었으나 누구인지 모름. 	
		정○○ (여, 15세)	삼척군 하장면 역둔리 (옆집 거주)	총성 들음 · 시신목격	마을주민	진술녹취 (2008.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시기: 1950. 가을경 •사건내용: 사건 당시 총성을 듣고 집밖에 나가보니 송은실이 억울하게 군인에게 희생당했다며 그의 모친이 대성통곡하는 것을 목격함. •피해이유: 마을에 들어온 국군을 송은실이 ‘빨갱이’로 오인하고 도망치다가 국군에게 총살당함. •시신수습: 시신을 한태골로 메고 가는 것을 목격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장면 갈전(역둔리에서 2~30리)에 ‘빨갱이’가 많았음. - 하장면 인민위원장은 파리대학 출신 남서방이었음. 	
		김○○ (남, 19세)	삼척군 하장면 대둔리	전문 (마을주민)	인근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8.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시기: 가을경 •사건내용: 송은실이 총살당했다며 그의 어머니(꼬부랑 할머니)가 장터에 있던 집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목격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장면 인민위원장은 파리대학 출신의 남용기였음. - 수복 이후 장성경찰서 역둔 출장소에 10명의 경찰(남순경, 방순경, 이순경 등)이 파견을 나와 1년 가량 있었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5	삼척군 근덕면 교곡리 임연식 희생사건 (다-10354, 임연식)	홍○○ (남, 16세)	노곡면 금계리 찰골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20세기량, 금계리 짐막골 거주, 삼척유지회사 근무 •사건시기: 1950. 10. 20.경 •사건내용: 국군 수복 후 노곡지서에 자수하러 갔으나 귀가하지 못하고 노곡면 드림재에서 군인에게 희생당했음. •피해이유: 노곡분주소에서 심부름을 함. •시신수습: 못했음. •희생규모: 노곡면 주민 20여명이 드림재에서 집단으로 총살되었음. •가해자: 국군 정훈부대 •미신청: 금계리 인민위원장 홍봉황, 세포위원장 김만배도 임연식과 함께 노곡지서로 자수하러간 뒤 희생당했는데 이들은 의용군을 모집한 바 있음. 	
		이○○ (남, 11세)	노곡면 금계리 큰마을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20~30세기량, 금계리 짐막골 거주. •사건시기: 1950. 수복 이후. •사건내용: 국군 수복 후 노곡지서에 연행되어간 후 드림재에서 총살당했음. •희생규모: 임연식, 홍봉황, 김만배 이외에도 희생당한 사람이 있음. •가해자: 국군 •미신청: 인민군 점령기 금계리 이장 홍봉황, 청년지도자 김만배도 연행되어 드림재에서 총살당했음. 	
6	삼척군 삼척읍 정라진항 김동형·김옥이 희생 사건 (다-8807, 김동형) (다-6838(1), 김옥이)	남○○ (남, 3세)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8807 •사건시기: 1950. 수복 이후 •사건내용: 김동형은 장호리 인민위원장 김씨(김상범)의 권유로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수복 직후 군인에게 연행되어 정라진항에서 수장되었음. •희생규모: '불순분자' 등과 함께 배에 한가득 실려 나가 수장되었음. •가해자: 경찰로 추정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6	삼척군 삼척읍 정라진항 김동형·김옥이 희생 사건 (다-8807, 김동형) (다-6838(1), 김옥이)	최○○ (남, 13세)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전문 (아버지)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5.)	▶다-8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기: 1950. 수복 직후 • 인적사항: 장호리 자위대장 • 사건내용: 국군선발대 입성 이 후 김△이 경찰에 연행되어 정라진항 앞바다에서 수장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기: 1951. 1·4후퇴 이전 •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형(다-8807): 장호리 자위대장 - 김옥이(다-6838(1)): 삼척읍 남양리 거주, 남편 원태봉이 이발소를 경영함. • 사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형은 학식이 없던 자로, 인민군 점령기에 자위대장으로 활동하다가 경찰에 의해 정라진항에서 수장되었음. - 김옥이는 삼척읍 남양리 여맹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수장되었음.(당시 김옥이와 활동하던 여맹위원장은 오모씨였음.) • 피해이유: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
		김○○ (남, 19세)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전문 (마을주민 · 가족)	마을주민 · 김옥이 5촌조카	진술조서 (2010.1.26.)	
7	삼척군 근덕면 근덕지서 김진만 등 7인 희생사건 (다-6469, 전일영) (다-8808, 정귀연) (다-6838, 김진만, 김 봉하, 이오봉, 윤옥출, 전순덕, 정귀연)	박○○ (여, 24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시신수습	부인	진술녹취 (2007.12.29.)	▶다-6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기: 1951. 1.경 • 사건내용: 1950. 추석 전 인민군에게 밥을 해주고,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있음. 이에 1950. 11.경 대한청년단원에게 잡혀가 근덕시장과 덕산리 사이 창고에 구금되어 있다가 1951. 1.경 맹방백사장으로 끌려가 희생당함. • 시신수습: 1951. 3.경 맹방백사장의 긴 구덩이(10여 미터, 시신이 꽂 차있었음)에서 한복저고리 단추를 보고 시신을 찾아 수습함.
		정○○ (남, 26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5.)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7	삼척군 근덕면 근덕지서 김진만 등 7인 희생사건 (다-6469, 전일영) (다-8808, 정귀연) (다-6838, 김진만, 김 봉하, 이오봉, 윤옥출, 전순덕, 정귀연)	전○○ (여, 25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바른골	전문 (어머니)	여동생	진술조서 (2010.1.25.)	<p>▶다-64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농업, 용화리 바른골 거주. •사건시기: 1950. 10.경(추석 이후) •사건내용: 원덕면 장호지서 경찰에 의해 장호지서로 연행된 후 근덕지서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맹방백사장 솔밭에서 총살됨. •피해형태: 총살(맹방백사장 솔밭 구덩이에서 많은 시체들이 끈에 묶여 총살된 채 발견되었음) •피해이유: 같은 해 추석 전에 산사람(빨치산)의 협박으로 밥을 해줬음. •시신수습: 설 이후, 전일영의 부인이 옷을 보고 시신을 찾아와 매장함. •가해자: 경찰로 추정
		김○○ (남, 14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전문	김봉하의 조카·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25.) (201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 정귀연(다-8808): 용화리 옷말 거주, 인민위원장 •사건시기: 1950. 12., 1·4후퇴 직전 •사건내용: 정귀연은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해 근덕지서로 연행되어 근덕지서 인근 창고에 구금되었음.(다-8808) 이때, 전일영(다-6469)과 숙부 김봉하를 비롯한 김진만, 윤옥출, 이오봉, 전순덕(이상, 다-6838), 황귀숙(미신청)도 함께 구금되어 있다가 맹방백사장, 팔송정 등에서 군인 또는 경찰에게 집단으로 총살당했음. •시신수습: 전일영의 시신은 맹방해수욕장에서 발견되었으며, 김진만의 시신은 수릿골(팔송정 골짜기)에서 발견되었음. 나머지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음.
		홍○○ (남, 14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전문	마을주민 ·경찰	진술조서 (2010.1.25.)	<p>▶다-68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 김진만: 치안대 활동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7	삼척군 근덕면 근덕지서 김진만 등 7인 희생사건 (다-6469, 전일영) (다-8808, 정귀연) (다-6838, 김진만, 김 봉하, 이오봉, 윤옥출, 전순덕, 정귀연)	홍○○ (남, 14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전문	마을주민 · 경찰	진술조서 (201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옥출: 용화리 거주 • 사건시기: 1951. 1·4후퇴 직전 • 사건내용: 김진만과 윤옥출이 팔송정에서 희생당했음. • 피해이유: 인민군 점령기 부역 활동 • 시신수습: 김진만의 시신수습됨. • 가해자: 국군
		김○○ (남, 20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연행목적 및 전문 (마을주민)	김진만의 조카·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기: 1951. 1. 8.(음 12. 1.) • 사건내용: 김진만, 윤옥출, 전순덕, 이오봉, 황규식(이상 다-6838), 정귀연(다-8808)이 근덕지서 인근 창고에 구금되어 있다가 근덕면 광태리 팔송정 뒷산으로 끌려가 군인에게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김진만 시신수습됨. • 기타: 용화리 인민위원장은 여러 차례 바뀌었음, 최동윤, 황만순, 최금대 등이 했음. • 제사일: 김진만의 제사일이 11. 30.임
영월군							
8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정홍일 일가 희생사건 (다-9420, 정홍일, 김 동굴, 정춘식)	정○ (여, 14세)	경북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현장목적 및 전문	가족	진술조서 (201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 큰오빠 정팔암 부부, 동생 정만식은 천평리 고무라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거주함. - 부모, 둘째오빠 정춘식, 참고인 정연, 여동생 정아지는 천평리 각 화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거주함. • 사건시기: 1949. 2.경(음력 1월) • 사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 정홍일은 끌려가 봉화군 춘양면 금정골에서 총살당했으며, 어머니 김동굴은 덕구리에서 총살당함. 둘째오빠 정춘식도 당시 희생당했으나 장소는 모름, 거주하던 집은 방화로 불탔음. • 피해이유: '빨갱이' • 가해자: 국군 • 시신수습: 동네 할아버지가 장소를 알려줘 정홍일의 시신은 금정골에서 오빠 정팔암이 허리끈을 보고 수습해왔으며, 모친의 시신은 동네 사람이 수습했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8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정홍일 일가 희생사건 (다-9420, 정홍일, 김 동굴, 정춘식)	신○○ (남, 14세)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전문 (마을주민)	인근마을 주민	진술조서 (20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시기: 1949. 겨울 •사건내용: 천평리 고무라골에 거주자 중 2명이 덕구리에서 총살당했으며, 고무라골은 불타버렸음. •가해자: 군인 	
		김○○ (남, 12세)	경북 봉화군 춘양면 덕구리 삼우골	희생목격 및 전문	인근마을 주민	진술조서 (20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시기: 1949. 2. 말경 •사건내용: 천평리 고무라골에 거주자 중 2명(40대 남성, 할머니)이 덕구리에서 총살당했으며, 고무라골은 불타버렸음. •피해이유: 천평리 고무라골에 거주하던 빨치산 부대의 습격으로 덕구리 거주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바 있음. 이에, 고무라골 거주자들이 모두 '간첩'으로 몰려 희생당했음. •가해자: 군인 •기타: 현재 폐교된 덕구 국민학교에서 많은 수의 군인들이 주둔하였음. 	
		권○○ (남, 17세)	경북 봉화군 춘양면 덕구리	전문 (마을주민)	인근마을 주민	진술조서 (20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시기: 1949. 풀이 없던 시기 •사건내용: 고무라골에서 소탕작전이 실시되어 여남은 집이 모두 없어지고 주민들이 희생당했음. 이때 고무라골에서 끌려온 여성 1명(15세로 추정)을 덕구리 주민이 부인 삼음. •피해이유: 춘양면 금정에 사는 빨치산들이 덕구리(2구) 이장 황기석과 임병태의 조부를 총살하고 가택을 방화하였음. 이후 빨치산들의 문서에 고무라골 거주자들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들이 '빨갱이'로 몰렸음. •가해자: 군인 또는 경찰 	
		정○○ (여, 12세)	경북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내용: 천평리 고무라골에 거주하던 오촌지간 정씨일가도 다 희생당하고 이웃에 갔던 딸 하나만 생존했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9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태인 희생사건 (다-6240, 이태인)	강○○ (남, 16세)	영월군 서면 복쌍리	전문 (마을주민)	사위	진술조서 (2008.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기: 1950. 10. 26.(음 9. 16) • 사건내용: 밭에서 보리를 갈던 중 쌍용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장릉고개 너머 두목 골짜기로 끌려가 총살되었음 • 피해이유: 인민위원회 활동 • 미신창: 복쌍리 인민위원장 안양길과 여맹위원장을 했던 안양길의 소실도 두목골짜기에서 희생당했음. 	
		엄○○ (여, 17세)	영월군 서면 후탄리 연정 마을	연행목적 및 전문 (부친)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기: 1950. 추석 이전 • 사건내용: 이태인(이명, 이영하)이 복쌍리 들골에 거주하던 목서방(성명 미상) 과 참고인의 자택을 지나 쌍용지서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참고인의 부친이 “까불고 돌아치더니 뒤지러간다” 라고 하였음. 이후, 총살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음. • 피해이유: 인민위원장 활동을 하며 마을사람들에게 강제로 부역을 시켰음. • 기타: 장릉(능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음. 	
10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김수규 희생사건 (다-7924, 김수규)	박○○ (남, 26세)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경험(연행) 및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60세 이상, 무릉리 인민위원장 • 사건시기: 1950. 10. 경 • 사건내용: 총을 맨 청방에게 무릉리에 있던 청방사무실로 끌려간 후 수주지서로 이송 후 희생당함. • 피해이유: 전쟁 이전부터 동네 이장을 맡았던 김수규가 마을사람들의 권유로 전쟁 발발 후에도 무릉리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함. • 미신창: 김관수도 부역혐의로 희생당해 무릉리 강변에서 시신을 수습했음. 동생 김관우, 수주면 인민위원장 송갑훈(송갑현)도 당시 희생됨. • 기타: 당시 참고인도 청방에게 끌려가 경찰과 청방에게 부역혐의(안동까지 인민군의 군량미를 실어다 줌)로 심문과 구타를 당한 바 있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10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김수규 희생사건 (다-7924, 김수규)	신○○ (남, 23세)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갑현: 무릉리 도곡마을 거주, 40세, 농업, 수주면 인민위원장 - 김관수: 무릉리 아리골 거주, 23세, 농업, 인민위원회 일을 도왔음. • 사건시기: 1950. 수복 후 • 사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갑현과 김관수는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도원지서 경찰에 의해 도원 도랑기에서 총살당했음. - 무릉리 거주 도△△은 좌익사상을 가진 자로 인민위원회 일을 돕다가 도원지서 경찰에게 희생당했음. 	
11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엄창현 희생사건 (다-2878, 엄창현)	강○○ (남, 23세)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창말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강림리 아천(아시내)거주. • 사건시기: 1950. 11. 말~12. 초경 • 사건내용: 경찰이 엄창현을 포함한 주민 10여 명을 연행해 갔음. • 피해이유: 인민위원회 활동 • 가해자: 황성경찰서 경찰 • 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구에 살던 박씨는 일제 강점기에, 허씨는 해방 후부터 인민군 점령기에 구장으로 활동함. 4구에 거주하던 이시우도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함. 수복 직후 이시우는 강림지서 경찰에 연행된 후 원주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고둔치 고개에서 사살되었으며, 박씨와 허씨도 함께 희생당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강림리는 영월군 소속이었으나, 황성경찰서 관할이었음. - 강림리는 강림리 1구(출장소가 위치함), 2구(송곡), 3구(노고소), 4구(가천)등으로 이루어짐. 	
		이○○ (남, 18세)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아천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강림리 아천(아시내)거주, 농업, 인심이 좋았음. • 사건시기: 전쟁 시기 • 사건내용: 군인 또는 경찰에게 끌려간 후 행적을 알 수 없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원주군								
12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김영철 희생사건 (다-10147, 김영철)	박○○ (남, 23세)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후리절	-	인근마을 주민	진술조서 (2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골에서 산판일(산에서 나무베는 일)하던 자들은 외지사람들로, 교류가 없어 알지 못하며 서곡리에서 부역혐의로 연행된 자들도 알지 못함. • 김영철(서곡리 외동막에 거주)은 알지만 진실규명대상자와 다른 인물임. 	
		김○○ (남, 21세)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후리절	-	인근마을 주민	진술조서 (2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골에서 산판일하던 자들은 외지사람들로,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함. • 미신청자: 김영철(서곡리 외동막 탐거리에 거주)이 의용군으로 갔다가 아군이 들어온 후 총살당했음. 	
13	원주군 문막면 문막지서 최병남 일가 희생사건 (다-235, 최병남·김보배)	이○○ (남, 21세)	원주군 문막면 문막리 안말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30세 이상, 문막리 장터거리 거주, 양자가 있었음. • 사건시기: 6·25 전쟁 중 • 사건내용: 전쟁 때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끌려갔는지 월북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함. 	
		안○○ (남, 22세)	원주군 문막면 문막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최병남에게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있었고 그의 동생 최덕봉(본명:최병욱)이 방앗간을 운영했음. • 사건시기: 가을 경 • 사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병남의 희생여부는 알지 못하나, 최병남의 동생 최덕봉은 좌익으로, 전쟁 때 행방불명됐음. - 최병남의 제수(김보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 기타: 해방 이후, 문막면에는 좌익세력이 많았으며, 세고개 골짜기 등에서 집단희생사건이 발생했음. 	
14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손어봉 부자 희생사건 (다-10632, 손어봉, 손상룡)	고○○ (여, 27세)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백간 마을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명 손영구, 농업, 봉산동 배말에서 단계동 백간마을로 이주함. • 사건내용: 1950. 늦가을, 손어봉과 손상룡이 자택에서 끌려가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14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손어봉 부자 희생사건 (다-10632, 손어봉, 손 상룡)	고○○ (여, 27세)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백간 마을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5.)	희생당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이유: 손영구는 인민군 점령기에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저녁마다 소집되었던 회의에 참석했을 가능성 있음. • 미신청자: 손영순의 아버지(성명 미상)가 끌려갔음. • 기타: 인민군 점령기에 활동한 자들을 트럭에 실어 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단계동 너머 산에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음.
		변○○ (남, 16세)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백간 마을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손영△(손상훈의 아버지), 농업, 봉산동에서 백간마을로 이주함. • 사건내용: 9·28수복 후 부역 혐의로 손영△와 그의 큰아들이 경찰에게 잡혀가 집단으로 희생당했음. • 미신청자: 손수천(손영순의 부), 김인배(보도연맹 희생자)
		손○○ (남, 16세)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백간 마을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손상훈의 아버지, 농업, 봉산동에서 백간마을로 이주함. • 사건내용: 손상훈의 아버지와 큰형이 전쟁시기에 행방불명되었으나, 가해자와 그 이유는 알지 못함. • 미신청자: 손수천은 인민군의 강요에 의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수복 후 국군에게 끌려가 원주경찰서에 구금되었음. 이후 1·4후퇴 시기 양안치재(매재리~충주)에서 희생당함. • 기타: 참고인의 고모가 판부면 서곡리 남송 인근에서 전화선에 손이 묶인 채 트럭 가득 실려가던 자들을 목격한 후 충성을 들었음.
15	원주군 원주읍 봉산동 신학준 일가 희생사건 (다-1063, 신학준, 김 경준, 신성준)	홍○○ (남, 21세)	원주군 원주읍 봉산동 원화실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봉산동 아래 화실 거주, 신성준(이명 신현준)은 다리가 불편했으며, 입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를 경작했음. 신학준은 농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15	원주군 원주읍 봉산동 신학준 일가 희생사건 (다-1063, 신학준, 김 경준, 신성준)	홍○○ (남, 21세)	원주군 원주읍 봉산동 윗화실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5.)	사를 지었음 • 사건내용: 1950. 12.~1951. 1. 청방으로 부산까지 다녀오니 신 승철(신청인)만 집에 혼자 거주하 고 있었음. 신학준 부부와 신성준 이 어떻게 됐는지 모름.
횡성군							
16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임상옥 희생사건 (다-379, 임상옥)	임○○ (남, 18세)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25.)	• 인적사항: 이명 임수백 • 사건시기: 1950. 10.~11.경(수 복 후 서숙[조] 도리깨질할 무렵) • 사건내용: 저녁 무렵 치안대 사 람에게 불려간 후 행적을 알 수 없음. • 피해이유: ‘빨갱이’ 사건 • 기타: 당시 마을 치안대가 총을 가지고 다녔고, 참고인도 치안대 에게 끌려가 구타당한 바 있음. • 미신청: 수복 직후 지방직외 임 상근(남, 50~60세)도 국군에게 잡혀가 희생당했음.
		김○○ (남, 21세)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10.2.25.)	• 사건내용: 1950. 수복 후 가을 떨이 할 무렵 끌려갔음. • 미신청: 수복 직후 지방직외 임 상근(남, 50~60세)도 국군에게 잡혀가 희생당했음.
17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정원영 희생사건 (다-9406, 정원영)	김○○ (남, 24세)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7.8.16.)	• 사건시기: 수복 후, 추운 때 • 사건내용: 마을을 수색하던 군 인이 집에 찾아와 며느리들에게 빨래를 해달라고 함. 이에 정원영 이 이들 대신에 부인에게 시키라 고 하자 군인이 다리에 총을 쏘 피를 많이 흘려 희생당함. • 가해자: CIC로 추정
		이○○ (남, 18세)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7.8.16.)	• 사건시기: 2차 수복 후 봄쯤. • 사건내용: 마을을 수색하던 군 인이 집에 찾아와 며느리와 손녀 딸들에게 빨래를 해달라고 함. 이 에 희생자가 대신 부인을 데려가 빨래를 시키라고 하자 군인이 다 리에 총을 쏘 피를 많이 흘려 희생 당함.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17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정원영 희생사건 (다-9406, 정원영)	이○○ (남, 18세)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7.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마을의 청년과 남자들은 징집되어가거나 피난을 가 있는 상태였음. 이에 마을에 노인, 부녀자,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미군과 한국군이 젊은 여성들을 찾아다녀 다들 은신해 있었음. 	

〈표 4〉 경찰 출신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번	지역	참고인					진술형태 (진술일)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과정	소속	진술형태 (진술일)		
1	삼척군	정○○ (남, 31세)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경험 및 전문	삼척경찰서	진술녹취 및 진술조서 (2008.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복정황: 1950. 9. 27.(음 8. 16.)경 후포항(경북 울진)에 보병 3사단과 함께 입성하여 9. 28.경 삼척경찰서 탈환하고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우익인사 70명을 석방하였음. ▶다-6469, 다-8808, 다-6838 •사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초겨울 부역혐의자들을 원덕, 오저, 장호 등의 각 지서에서 체포하여 처 조사한 후, 그 중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근덕지서로 압송하여 지서 옆 창고에 구금하였음. - 삼척경찰서에서 근덕지서로 파견 나온 사찰계 형사 박근우, 김윤하 등이 조사 후 이들의 생사를 결정하였는데, 희생장소는 알지 못함. 근덕지서에서 재조사한 이들을 삼척경찰서로 압송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구금하기도 함. ▶다-6838 •사건시기: 모름. •사건내용: 풍곡리 덕풍마을에 거주하던 한맹철 등 입산자의 가족들을 21연대 군인들이 총살함. 강릉에는 18연대, 삼척에는 21연대가 주둔했음. •피해이유: 한맹철은 덕풍의 책임자로, 전쟁 이전 좌익활동으로 강릉에 구금되어 있다 출소한 후 가족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입산하였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지역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과정	소속	진술형태 (진술일)	
2	삼척군	김○○ (남, 22세)	삼척군	경험 및 전문	삼척경찰서 경무계	진술조서 (2010.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정황: 1950. 9. 말 3사단이 삼척에 입성함. 이에 앞서 군선발대(CIC, 헌병대 등)가 삼척에 먼저 입성했음. ● 경찰조직: 수복 후 삼척경찰서장은 이경진 총경이었으며, 의용경찰('51. 3. 8. 일괄 순경임명) 50명이 삼척서 소속이었으나, 치안대는 없었음. ▶ 다-6469, 다-8807 ● 사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읍 정라진항과, 근덕면 맹방백사장에서 부역혐의자들이 희생당했으며 정라진항의 경우 어선(30~40명 승선)에 여러 차례 부역자들을 태워 수장했다는 말을 들었음. - 삼척경찰서 관내 주요 지역 부역자 처리를 위해 본서 사찰계 박근우가 근덕지서로, 남하식이 부평읍으로 파견되었음 - 삼척지역은 후퇴 시 보도연맹원을 처리하지 못했음. 이에 수복 후 희생된 부역혐의자들은 600명 정도일 것임.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해안지역의 강릉, 삼척, 울진의 좌익세력이 강했으며 삼척군내에서는 북평읍, 하장면, 미로면, 근덕면, 삼척읍 정라, 남양지역의 좌익세력이 강했음. - 1949. 6. 16.(양력) 공비가 삼척군 풍곡리 이장을 살해하고 달아나 당시 근무지인 삼척경찰서 오저지서에서 출동한 바 있는데, 이때 경찰 3~4명이 희생당했음.
3	영월군	우○○ (남, 26세)	영월군 서면 북쌍리	경험 및 전문	영월경찰서 주천지서	진술조서 (2010.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정황: 군 탈한 후 경찰이 복귀함. ● 경찰조직: 복귀 시 영월경찰서장은 이대인 경감, 주천지서장은 최태식 이었음. ▶ 다-6240 ● 사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역혐의자들은 수복 직후 군인에게 끌려가서 희생당하거나 지서 또는 경찰에 압송 후 생환 또는 희생당했음. - 주천지서의 경우 수복 청년방위대원(이하 청방)들이 부역자들을 구금해 놓

제 3 권

연번	지역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과정	소속	진술형태 (진술일)	
3	영월군	우○○ (남, 26세)	영월군 서면 북쌍리	경험 및 전문	영월경찰서 주천지서	진술조서 (2010.4.15.)	<p>있음.(지서 뒷산에서 부역자들을 자체 처리하기도 했음) 이에 참고인의 경우 부역혐의자 7~9명을 영월경찰서로 압송하여 유치장(3칸, 1칸에 8명 정도 구금)에 구금시켰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릉(능말) 골짜기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는 말을 들었음. - 북쌍리 거주 목영근(남, 40세 이상), 안양길(남, 40세 이상)이 수복 직후 부역혐의로 군인에게 희생당했으며, 안양길의 소실은 서면지서에서 부역혐의로 총살당했음. 신승철(남, 29~30세)도 영월경찰서로 끌려간 후 생환하지 못함. - 북쌍리에 보도연맹원이 3~4명 정도 있었는데 안양길의 형 안봉길은 보도연맹원으로 희생당했음.
4	원주군	김○○ (남, 26세)	화천군	전문	화천경찰서 구만리발전소 (1952.3. 원주서수사과 발령)	진술조서 (2010.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정황: 춘천으로 복귀 후 화천서 발령. ▶ 다-235, 다-10632 • 사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리파재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차단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양안치, 문막 사고개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알지 못함. - 문막면은 일제강점기에 금융조합이 설립되면서 죄익세가 강해졌으며 원주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음. 강원도당 인민위원장과 태백지구 사령관이 문막 출신이었으며, 월북자들이 많았음.
5		안○○ (여, 25세)	원주군	전문	원주경찰서	진술조서 (2010.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정황: 10월말~ 11월 초 부상자들과 함께 원주서로 복귀함. ▶ 다-235 • 사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막면은 모스크바로 불렸으며, 희생자가 많으나 그 경위와 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6	횡성군	이○○ (남, 26세)	횡성군	경험 및 전문 (경찰)	횡성경찰서 청일지서	진술조서 (2010.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정황: 8. 28.경 보현산 전투 중 부상을 당해 2개월 정도 입원해 있다가 횡성경찰서 본서로 복귀했음. • 경찰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 후 횡성경찰서가 파괴되어 농협 창고를 임시창고로 사용했음. 횡성경찰서장은 경감 김△△였으며, 청일지

연번	지역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과정	소속	진술형태 (진술일)	
6	횡성군	이○○ (남, 26세)	횡성군	경험 및 전문 (경찰)	횡성경찰서 청일지서	진술조서 (2010.4.14.)	<p>서장은 신△였음. 청일지서에는 의용경찰(정복 입지 않았으나 총은 지급)이 2명이었음.(참고인 복귀 시 차안대는 없었음)</p> <p>▶다-379</p> <p>•사건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역혐의자들을 임시청사로 쓰던 농협창고 옆 창고(유치장)에 구금했음. - 각 지서(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음)에서 경찰서로 부역자들을 넘기면 본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원주로 송치했는데 당시 원주로 압송된 자들은 희생당했음(청일면 유동리 골말 반장 윤공선이 청일지서→횡성경찰서→원주법원으로 넘겨진 것을 알고 아는 사람을 통해 빼준 적이 있음.) - 전쟁 직전, 횡성지역 보도연맹 척결지시가 내려와 추동지서 관내 보도연맹원 4명을 체포한 바 있으나, 경찰서로 넘기지 않는 않았음. 다른 지서 등은 넘겼을 것. •기타: 횡성지역은 좌익세력이 강했으며, 전쟁이전에도 지서차원에서 좌익들을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음.
7		전○○ (남, 28세)	횡성군	경험 및 전문	횡성경찰서 경비계	진술조서 (2010.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복정황: 잔비토벌을 하며 횡성으로 복귀함. •사건관련: - 후퇴 시 인민군에 협력할 것을 우려해 보도연맹원 중 주요인물 20명 정도를 차에 태워 영천까지 압송한 후 처리했음. - 수복 후에도 보도연맹 때 들이 남아 있었는데, 명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사찰계에서 조사했음.

다. 현지 조사

2007. 8.부터 신청인과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조사는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1차 현지 조사는 2008. 8. 18.~8. 28. 강원도 삼척시와 영월군, 횡성군 일대, 제2차 현지 조사는 2010. 1. 24~1. 28. 삼척시 일대, 제3차 현지 조사는 2010. 2. 4.~2. 6. 강원도

원주시 일대, 제4차 현지조사는 2010. 2. 24.~2. 26. 강원도 영월군, 횡성군 일대, 제5차 현지조사는 2010. 4. 13.~4. 16. 강원도 춘천시, 원주군, 횡성군, 영월군, 강릉시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사건발생현장과 피해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지역의 지명지 등의 지역사 자료도 수집하였다.

II.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강원지역은 산악이 산재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전쟁 이전부터 공비의 이동 및 은신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군경의 공비토벌작전이 빈번히 실시되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개전 후 인민군 퇴각기에는 강원지역이 패잔병들의 퇴로로 이용되어 이들이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³⁰⁾

국군의 수복 후에는 인민군 점령기에 직·간접적으로 불가피하게 인민군 측에 협력했던 부역자와 부역혐의자에 대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경기 강원지역을 오르내리며 점령과 탈환이 반복되었던 전쟁을 강원도민들은 피스톤전쟁(톱질전쟁)으로 불렀다.³¹⁾

각 지역별 구체적인 사건배경은 이하 사건내용에서 다루었다.

2. 사건발생시기·장소 및 희생규모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사건을 문헌자료와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1949. 2.~1951. 3. 강원 남부지역 삼척군, 영월군, 원주군, 횡성군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21명 등 총 57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30) 남쪽 지역에 고립 잔류 중이던 인민군 제5·7·8사단의 잔여 병력이 전열을 정비하여 동해안 산악지대 일대를 따라 북상하면서 10. 15. 삼척, 10. 16. 강릉, 10. 19. 주문진 등의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공서를 습격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지』, 1997, 394쪽; 강릉시사 편찬위원회, 『강릉시사 下』, 1996, 283쪽; 강원도사 편찬위원회, 『강원도사 현대편』, 1996, 100쪽.

31)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2000, 744~745쪽.

〈표 5〉는 사건발생시기·장소·희생자 수를 각 지역별 사건발생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사건발생시기·장소 및 희생규모

(단위: 명)

면역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발생장소 (최종 발견장소)	희생자 수	
					진실규명 대상자	미신청자
삼척군						
1	다-9470	삼척군 상장면 혈리 박우두만·권병오·박근 덕 희생사건	1950.3.경	경북 봉화군 천평리 천평국민학교	1(확인)	-
	다-10504			삼척군 북평읍 북삼국민학교	1(추정)	-
	다-10506			경북 봉화군 춘양면 곡넘이재 인근	1(추정)	-
2	다-6839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	1950.9.11. ~9.25.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을 앞산 원덕면 풍곡리 	9(확인)	4(추정)
3	다-6612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김상범 희생사건	1950.9.28.	원덕면 장호리 골목길	1(확인)	-
4	다-4556	삼척군 하장면 역둔리 송은실 희생사건	1950.9.말 ~10. 초경	하장면 역둔리 장거리 자택 앞	1(확인)	-
5	다-10354	삼척군 근덕면 교곡리 임연식 희생사건	1950.11.22.경	근덕면 교곡리 드릅재	1(확인)	2(추정)
6	다-8807	삼척읍 정라진항 김동형·김옥이 희생사건	1950.12. 말경	삼척읍 정라진항 앞바다	1(확인)	-
	다-6838(1)				1(추정)	
7	다-6469	삼척군 근덕면 근덕지서 김진만 등 7인 희생사건	1951.1.8.~ 1.10.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백사장 근덕면 광태리 팔송정 뒷산 	6(확인)	1(추정)
	다-8808				1(추정)	
	다-6838					
영월군						
8	다-9420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정홍일 일가 희생사건	1949.2.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금정골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금정골 	2(확인) 1(추정)	-
9	다-6240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태인 희생사건	1950.10.26.경	북면 문곡리 두목골(장릉 인근)	1(확인)	4(추정)
10	다-7924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김수규 희생사건	1950.10. 말경	수주면 무릉리 강변	1(추정)	1(확인) 3(추정)
11	다-2878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엄창현 희생사건	1950.11.24.경	장소 불상(횡성경찰서)	1(확인)	3(추정)

제 3 권

연 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발생장소 (최종 발견장소)	희생자 수	
					진실규명 대상자	미신청자
원주군						
12	다-235	원주군 문막면 문막지서 최병남 일가 희생사건	1950.12. 말경	장소 불상(문막지서)	2 (추정)	-
13	다-10632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손어룡 부자 희생사건	1950.12. 말경	가리파재 또는 양안치재(역전지서)	2(확인)	1(확인)
14	다-10147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김영철 희생사건	1950.9.30. ~10. 초경	-	불능 ³²⁾	1(추정)
횡성군						
15	다-379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임상옥 희생사건	1950.11. 초경	장소 불상(원주지검)	1(추정)	1(추정)
16	다-9406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정원영 희생사건	1951.3. 중순경	청일면 유평리 자택	1(확인)	-
계					확인: 28 추정: 8	확인: 3 추정: 18

한편, 강원도경찰국 보고문건(1970. 1. 7.)은 도내 사찰대상자(처단자의 가족) 통계과정에서 한국전쟁 시 강원지역 '처단자'를 1,099명, 강원 남부지역의 처단자를 621명으로 기록하였는데,³³⁾ 이를 지역별로 보면 삼척 102명, 영월 226명, 원주 94명, 횡성 199명이다 (<표 6>).

〈표 6〉 한국 전쟁시기 강원 남부지역 희생규모

서별	구분	6.25시 처단자 수	6.25시 처단자의 가족 수
	계	621	1,823
	삼척	102	512
	영월	226	789
	원주	94	124
	횡성	199	398

32) 신청사건 다-10147은 진실규명불능되었으나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동명이인 김영철이 희생자로 추정된 바, 본 표에 기재하였다.

33) 내무부 정보과, 「업무지시」1970. 1. 7., 국가기록원; 강원도경찰국, 「업무지시 (응신)」, 1970. 1. 7., 국가기록원

3. 사건내용

가. 진실규명 사건

1) 삼척군

해방 후 삼척군은 강릉, 울진과 더불어 좌익세가 강해 미군정도 강원 10개 군 중 이들 3지역 군수를 인민위원회 출신으로 임명할 정도였다. 모스크바 협정 이후에는 군수가 우익인사들로 교체되었으나 인민위원회 활동은 여전히 강력했고 이후에도 봉기와 유격전 등이 발생하였다.³⁴⁾ 삼척군은 이러한 정치적 특징과 더불어 지리적으로 태백산맥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청옥산(1,404m), 두타산(1,353m), 중봉산(1,284m), 백병산(1,259m) 등 높은 산이 많아 공비의 이동 및 은신이 용이하여 전쟁이전부터 공비 출현이 잦았다.³⁵⁾ 이에 군경의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되거나 빨치산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발생하였다.

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사건 조사결과에서 삼척군의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규모가 도내 타군에 비해 큰 것은 신청건수 및 진실규명대상자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다.³⁶⁾ 그러나 삼척군 내에서 좌익의 세가 강해 부역혐의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평읍, 하장면, 미로면, 근덕면, 삼척읍에 거주했던 진실규명대상자들에 대한 신청건이 총 3건인 반면 원덕면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들에 대한 신청 건은 5건으로 본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희생규모는 제한적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삼척지역의 진실규명신청 건은 11건이며 이를 분리·병합하여 사건 수를 7건으로 정리하였으며, 진실규명대상자는 25명이다.

34) 브루스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2001, 425~426쪽;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13.) 삼척군은 인민위원회의 세력이 강해 정부에서 군수나 서장을 임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해방 되던 해 경찰로 임명받은 이가 없었다.

35) 1948. 2월 삼척군유격대원 33명이 태백산 만경대에 대대를 설치하고 북평, 근덕, 삼척중대를 조직하는 한편 강원도당 북부지구 중봉산 유격책 남병기가 조직한 유격대와 합류하였다. 이에, 삼척경찰은 1949. 2. 3. 삼척유격대대를 일망타진하였으나 중봉산 유격대는 1949. 10. 남침 유격패잔병과 합류하여 하장지서를 습격하여 순경 1명을 살해하고 지서에 방화하였다. 강원도경찰국, 『영광의 서곡 - 강원경찰전사 제1집』, 1952년, 88~89쪽.

36) 이와 마찬가지로 삼척경찰서 관내 북평, 근덕, 장호, 임원, 노곡, 미로, 원덕, 오저, 정라, 삼화 등 10개 지서 중 5개 지서와 관련된 신청사건만 본 결정서에서는 다루고 있다.

제 3 권

가) 상 장면 혈리 박우두만·권병오·박근덕 희생사건(다-9470·다-10504·다-10506, 1950. 3.경)

1950. 3.(음력 2.)경 상 장면 혈리 당골에³⁷⁾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박우두만(남, 40~45세)³⁸⁾이 국군의 작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천평국민학교³⁹⁾에서 총살당했다.⁴⁰⁾ 또한 혈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박근덕(남, 35세 미만)⁴¹⁾이 삼척군 북평읍 북삼국민학교에서, 혈리 촌실이골(춤시리골)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권병오(權炳五, 남, 32세)⁴²⁾가 빨치산에게 짐을 지어주었다는 이유로 각각 국군에게 끌려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1949. 9. 28. 창설되어 1950. 3. 중순까지 빨치산 토벌작전을 진행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이하 '태전사')⁴³⁾ 소속 군인으로 판단된다.⁴⁴⁾

박우두만은 소금장수로, 마을을 돌며 소금을 팔고 오던 길에 군인 차를 목격하고 모여 있던 마을청년들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에 빨치산에게 짐을 지어다 주었던 청년들이 군인들에게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도망가거나 은신하였는데 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박우두만을 천평국민학교로 끌고 가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하였다.⁴⁵⁾ 참고인 정○○은 군인이 '사자밥'을 차려오라고 하여 강냉이밥을 해갔으나 학교마당에 있던 박우두만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다 집으

37) 현, 태백시 혈동. 법률 제3425호(1981. 7. 1.)로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통합하여 태백시를 설치함. 법률 제539호(1960. 1. 1.)로 삼척군 상 장면이 장성읍으로 승격됨. 당시 혈리(천평, 어평, 당골 등 6개 촌락으로 이루어짐)는 마을 가운데 흐르는 개천을 경계로 동쪽은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에 서쪽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 속함.

38) 해당 기관에 박우두만의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기록 없음을 회신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조사1팀-201), 「제적등본 발급협조요청(다-9470)」, 2010. 3. 3.; 춘양면(춘양면-2098), 「제적등본 공용발급 회신」, 2010. 3. 4.; 상동읍(상동-1294), 「제적등본 발급 요청 회신」, 2010. 3. 3.

39) 신청인 유옥연과 참고인 정○○은 희생장소를 천평국민학교로 기억하고 있으나, 참고인 윤○○은 혈리 국민학교 분교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유옥연 진술조서」(2010. 2. 25.);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2. 22.); 「참고인 윤○○ 진술조서」(2010. 2. 22.)

40) 참고인 윤○○은 가해자가 백호부대라고 진술하였으나 육군 제36사단(백호부대)는 1955년 강원도 인제에서 창설한 강원향토사단으로 사건 당시 창설되지 않았다.

41) 신청인 윤순희는 진실규명대상자 박근덕이 당시 35세 정도였던 박근식의 동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윤순희 진술조서」(2010. 2. 22.)

42) 진실규명대상자 권병오의 제적등본이 소실되어, 신청인 권옥순(권병오의 딸)이 1971년 취적하였다. 이에, 권병오 나이는 신청인 권옥순의 진술을 근거로 기재하였다. 「권옥순 제적등본」; 「신청인 권옥순 진술조서」(2008. 5. 29.)

43)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67쪽

44) 태백산 전투사령부는 작전구역인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의 외판가옥 또는 산간부락을 모두 없애고 일정한 지역에 50호 단위의 집단부락을 형성케 하여 북한유격대의 은신처를 없애는 한편 지방적익들과의 접촉을 차단시켰다. 강원도사 편찬위원회, 「강원도사 현대편」, 1996, 89쪽.

45) 「참고인 윤○○ 진술조서」(2010. 2. 22.)

로 돌아갔다. 그러나 군인들이 참고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을 불러내어 박우두만의 총살 장면을 목격하게 하였다.⁴⁶⁾ 박우두만의 시신은 마을주민에 의해 수습되었다.⁴⁷⁾

진실규명대상자 박근덕은 농업에 종사하던 중 빨치산의 요구로 큰연재기골로 짐을 지어다 주었는데 그 이유로 군인에게 끌려가 북삼국민학교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청인의 외숙부가 북삼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 혈리학교 재직 시 제자였던 박근덕의 희생 장면을 목격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었다.⁴⁸⁾

진실규명대상자 권병오는 마을에서 반장일을 보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1950. 3.경 저녁, 빨치산이 집에 찾아와 닭과 옥수수를 요구하자 실갱이를 벌이다⁴⁹⁾ 춤실이골 너머 구마동(춘양면)으로 곡식을 지어다 주었다. 마을주민 유순들은 춘양장에서 돌아오다가 권병오가 곡넘이재(춘양면 서벽리~춘양장)에서 국군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다.⁵⁰⁾ 권병오는 빨치산에게 짐을 지어다 주었다는 이유로 국군에게 끌려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1950. 3.경 상 장면 혈리에서 진실규명대상자 1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추정하였다.

나)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다-6839, 1950. 9.경)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을은 삼척과 울진의 경계를 이루는 응봉산(999m)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이다. 응봉산은 육백산, 사금산⁵¹⁾ 일대와 더불어 삼척에서 무장공비의 출몰이 잦았던 지역으로, 전쟁 이전부터 공비들이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에게 식량을 가져가는 한편 입산을 권유하기도 하였다.⁵²⁾

46) 박우두만는 상·하체에 총을 각 1발씩 맞고 희생당했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2. 22.)

47)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2. 22.); 『참고인 윤○○ 진술조서』(2010. 2. 22.) 참고인 정○○은 군인이 시신을 수습하여 학교에 매장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윤○○은 유순돌과 마을주민들이 수습한 후 친정집 동네에 묘를 썼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교적 구체적인 윤○○의 진술에 비중을 두었다.

48) 『신청인 유순희 진술조서』(2010. 2. 22.) 한편, 강원도 교육청 인사기록 조회결과 북삼국민학교에서 박근덕의 총살을 목격한 신청인의 외숙부 최익한이 1949. 11.30.~1950. 10. 31. 북삼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36. 1. 1.~1938. 8. 31. 혈리사립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한 내용도 확인하였다. 진실 화해위원회, 『경력사실 확인 협조요청(다-10506)』, 2010.4.7.(조사1팀-283); 강원도교육청, 『경력사실(다-10506) 확인 요청 자료충부』, 2010. 4. 12.(총무과-4377)

49) 신청인 권옥순은 무서워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아버지와 빨치산과의 대화내용을 들었다. 『신청인 권옥순 진술조서』(2008. 5. 29.)

50) 『참고인 윤○○ 진술조서』(2010. 2. 22.)

51) 사금산은 남로당 삼척군단의 거점이었다. 『참고인 정○○ 진술녹취 및 진술조서』(2008. 8. 22.)

52) 강원도 삼척시청, 『삼척시지』, 1997. 397쪽; 『참고인 엄○○ 진술조서』(2010. 1. 26.)

제 3 권

덕풍마을 주민 중에서도 입산자가 있었는데 김종하(金鍾河),⁵³⁾ 김종춘(金鍾春),⁵⁴⁾ 한맹철(韓孟哲), 심순도(沈順道) 등이 이들이었다. 이중 한맹철은 ‘산사람’ 중 ‘높은 사람’으로,⁵⁵⁾ 그의 가족들은 지서에 불려가 한맹철의 행방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⁵⁶⁾

1950. 9.경⁵⁷⁾ 풍곡리 덕풍마을 주민 김덕삼(金德三, 남, 70세), 김도철(金道哲, 남, 57세), 한치상(韓致相, 남, 62세), 이상옥(李相玉, 여, 59세)과 김△주(金△珠, 여, 30세), 한맹철의 제수 1명, 홍옥금(洪玉金, 여, 49세) 등 7명이 덕풍마을 앞산 구렁이에서 3사단 선발대원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에 의해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으로 총살당했다. 당시 한맹철의 제수는 임신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몸이 불편해 집에 머물던 엄계상(嚴桂尙, 여, 61세)의 집에 방화를 하여 엄계상이 소사(燒死)하였다. 입산자 한맹철의 부인 김순례(金順禮, 여, 34세)는 이와 같이 동서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에서 군인이 쫓아가자 이를 피해 도망 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⁵⁸⁾ 희생당한 이들 대부분의 시신이 수습되었으⁵⁹⁾ 전쟁이 끝난 후 입산자들이 마을에 내려와 본인 가족의 묘를 썼다고 한다.⁶⁰⁾

53) 참고인 엄○○은 김덕삼의 작은 아들 즉, 김용섭의 아버지가 ‘입산자’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용섭이 부친 김종하의 사후에 큰아버지 김종춘에게 1953. 5. 20. ‘사후양자’로 입적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사건발생 당시 김용섭의 아버지를 김종하로 판단하였다. 『참고인 엄○○ 진술조서』(2010. 1. 26.)

54) 김종춘은 동생 김종하의 입산으로 지서 경찰에게 시달림을 받아 입산하였다. 『참고인 엄○○ 진술조서』(2010. 1. 26.)

55) 『신청인 이경일 진술조서』(2008. 8. 21.)

5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8. 21.) 한편, 참고인 정○○은 덕풍의 ‘책임자로 마을을 빨강계 물들었던’ 한맹철이 전쟁 이전 검거되어 강릉에서 여러 달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된 후 마을에 돌아와 가족들의 총살 소식을 들은 후 입산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 한맹철의 판결문을 검색해보았으나, 그의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참고인 정○○ 진술녹취 및 진술조서』(2008. 8. 22.)

57) 신청인이경일과 엄기남은 사건발생시기가 음력 7월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이○○은 추석 직전이라고 진술한바 사건이 1950. 9.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5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8. 2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8. 21.); 『참고인 엄○○ 진술조서』(2010. 1. 26.)

5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8. 2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8. 21.)

60) 마을주민이던 입산자들이 내려와 그들의 가족인 김덕삼, 엄계상, 김도철, 한치상, 이상옥, 한맹철의 제수 2명의 묘를 썼다고 한다. 『참고인 엄○○ 진술조서』(2010. 1. 26.)

당시 덕풍마을에서 희생된 진실규명대상자와 입산자와의 관계 및 희생형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입산자	관계	진실규명대상자	희생형태	입산자	관계	진실규명대상자	희생형태
한맹철	부	한치상	총살	김종하 김종춘	부	김덕삼	총살
	모	이상옥	총살		모	엄계상	소사
	처	김순례	익사	숙부	김도철	총살	
	제수	김△주	총살	심순도	모	홍옥금	총살
	제수	△△△	총살				

가해주체에 대해 마을에 거주하던 참고인들은 가해자를 백골부대 또는 백호부대의 소대원라고 진술하였다.⁶¹⁾ 그러나 당시 백호부대는 창설 전이었고 3사단이 백골부대로 칭해졌던 점, 그리고 3사단이 9. 22.~ 30. 포항-영덕-울진-삼척-강릉으로 진격할 정황으로 볼 때⁶²⁾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3사단 소속 선발대원으로 추정된다.

사건 이후 9. 28.(음력 8. 17.)경 덕풍마을에는 소개령이 내려 10. 1.(음력 8. 20.)경 마을 주민들이 풍곡리 큰마을로 이주하였다.⁶³⁾

한편, 덕풍마을 사건이 발생한 무렵 풍곡리 큰마을(현 풍곡리 풍곡교회 뒤편, 631-1번지)에서 풍곡리 오모재에 거주하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박중손, 박중손의 부모, 형수 등 4명이 박중손의 형 박중태가 '산패'라는 이유로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박중손의 할아버지는 가족이 희생당한 충격으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한다.⁶⁴⁾

박중손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전부터 오저지서에 불려가 여러 차례 박중태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⁶⁵⁾

참고인 박○○은 사건발생시기를 가을경으로 진술하였는데, 대한청년단 풍곡리 감찰계장으로 활동하던 참고인이 본 사건 이후 퇴각하는 인민군에게 끌려갔고, 가해자가 백골부대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⁶⁶⁾ 본 사건의 발생시기와 가해주체가 덕풍마을 사건과 유사하다고 추정된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희생장소에서 수습하여 매장하였다고 한다.⁶⁷⁾

이에, 1950. 9.경 원덕면 덕풍리에서 진실규명대상자 9명을 비롯하여 미신청자 4명 등 총 13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6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8. 21.); 『참고인 엄○○ 진술조서』(2010. 1. 26.) 한편, 당시 경찰에 재직했던 참고인 정○○은 21연대가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인민군의 기습작전에 피해를 입은 후, 덕풍마을로 들어가 한행철의 가족들을 죽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8사단 21연대는 주로 전쟁 이전에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하였고, 사건발생시기에는 안동-영주-단양 지구로 복진하고 있었다. 『참고인 정○○ 진술녹취 및 진술조서』(2008. 8. 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13.). 전쟁 이전, 제8사단 10연대는 주로 강릉 이북지역 38선 경비를 담당하였고, 21연대는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을 전담하였다. 특히 21연대는 오대산, 태백산, 경북산악지대는 물론 지리산까지 가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강원도삼척시청, 『삼척시지』, 1997, 396~397쪽.

6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282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1971, 63쪽. 3사단은 9. 2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99호에 의거 22연대의 주력부대를 선두로 삼척을 탈환하였다.

6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8. 21.); 『참고인 엄○○ 진술조서』(2010. 1. 26.)

64)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26.)

65) 참고인 김○○에 의하면 그가 오저지서에 근무하던 1949. 6. 16. 풍곡리에 공비가 출현하여 경찰 3~4명이 희생당했다고 한다. 이에 입산자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13.)

6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26.)

67) 이들의 시신은 총살당한 자리(현, 가곡면 풍곡교회 뒤)에 매장되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26.)

제 3 권

다) 원덕면 장호리 김상범 희생사건(다-6612, 1950. 9. 28.)

1950. 9. 28.(음력 8. 17.) 원덕면 장호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상범(金常範, 남, 49세, 이명 김은호)이 인민군 점령기에 장호리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장호리 골목길에서 육군헌병에게 총살당했다. 김상범은 숨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하였고, 가해 헌병은 집으로 찾아와 그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⁶⁸⁾ 당시 경찰로 재직한 참고인 정○○가 9. 28.경 3사단과 함께 삼척에 입성했던 정황으로 볼 때⁶⁹⁾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3사단 소속 헌병대로 판단된다.

김상범은 농업에 종사하며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피난가지 못하고 마을에 머물러 있던 중 인민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⁷⁰⁾ 사건 당일 저녁 어스름에 국군헌병 30여 명이 트럭 여러 대를 타고 장호리에 들어왔으며, 김상범이 완장을 차고 흰 철모를 쓴 헌병에게 3발의 총격을 받고 희생당한 후 날이 어두워지자 삼척경찰서 경찰들이 마을에 들어왔다.⁷¹⁾

김상범의 시신은 옆집에 거주하던 할아버지가 수습하여 마을 공동묘지에 매장하였으며,⁷²⁾ 제사일은 음력 8. 16.이다.

라) 하장면 역둔리 송은실 희생사건(다-4556, 1950. 9. 말~ 10. 초경)

1950. 9. 말~10. 초경 하장면 역둔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송은실(宋銀實, 남, 19세)이 역둔 장거리 자택 앞에서 군인을 보고 도주하다 국군에게 사살당했다.

송은실은 일용노동(품팔이)에 종사하였고,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사실이 없었다.⁷³⁾ 송은실이 숨지자 마을에는 그가 군인을 ‘빨갱이’로 생각하고 피하려 하자 수상히 여긴 군인이 총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⁷⁴⁾ 당시 역둔리에는 인민군 퇴각 이후에도 ‘잔비’들이 계속 출현하였으며,⁷⁵⁾ 마을주민들은 이들의 출몰에 따라 은신을 반복하였다.⁷⁶⁾

68) 『신청인 김원석 진술조서』(2009. 4. 1.); 참고인 김○○은 당시 김상범이 헌병에게 총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의 집으로 갔으나, 집 앞에 있던 헌병들이 출입을 막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인 김○○진술조서』(2008. 8. 25.)

69) 『참고인 정○○ 진술녹취 및 진술조서』(2008. 8. 22.)

7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8. 25.);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8. 8. 25.)

71) 『참고인 김○○진술조서』(2008. 8. 25.);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8. 8. 25.)

7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8. 25.)

7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10. 8.); 『참고인 정○○ 진술녹취』(2008. 10. 8.)

74) 『참고인 정○○ 진술녹취』(2008. 10. 8.)

7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10. 8.); 『참고인 정○○ 진술녹취』(2008. 10. 8.); 강원도경찰국, 『영광의 서곡 - 강원경찰전사 제1집』, 1952년, 242~244쪽.

76) 『참고인 정○○ 진술녹취』(2008. 10. 8.)

이에, 송은실이 수복 후 마을에 들어온 3사단 소속 국군을 인민군 패잔병으로 오인하고 도주하다 '좌익'으로 의심받아 사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희생 시기는 하장면에서 인민군이 퇴각하던 9. 말경부터 하장면을 관할하던 장성경찰서가 수복된 10. 초경으로 추정된다.⁷⁷⁾ 한편, 참고인들은 총성이 난 후 송은실의 어머니('꼬부랑 할머니'로 불림)가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대성통곡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⁷⁸⁾ 그의 시신은 마을주민들이 수습하여 가마니를 덮어 한태골(하장면 어리~용연리)로 메고 가⁷⁹⁾ 매장했다고 한다.⁸⁰⁾

마) 근덕면 교곡리 임연식 희생사건(다-10354, 1950. 11. 22.경)

1950. 11. 22.(음력 10. 13.) 이후 노곡면 금계리⁸¹⁾ 짐막골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임연식(林連植, 남, 22세)이 인민군 점령기에 노곡분주소에서 심부름을 하고, 짐막골로 피신은 부역혐의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근덕면 교곡리 드릅재⁸²⁾에서 희생당했다. 이때, 금계리 큰마을에 거주하던 미신청자 홍봉황(洪鳳凰, 남, 42세)과 김만배(남, 25~26세)를 포함한 노곡면 주민 10여 명이 함께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자에 대해 정훈부대라는 소문이 돌았으나⁸³⁾ 삼척경찰서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부역혐의자들이 연행되어 구금, 희생된 정황으로 볼 때 군경합동 작전으로 이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실규명대상자의 집안은 삼척 김씨 문중 땅을 농사지었고 임연식은 정라(삼척읍내)에 있는 유지공장에 다녔으나 형편이 좋지 않았다. 임연식은 의용군으로 차출될 것을 우려해 노곡분주소에서 심부름을 했는데 수복 후 마을주민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협조한 자들을 구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은신해 있다가 11. 22. 노곡지서에 자수하였다.⁸⁴⁾ 당

77) 하장면은 9. 30.경부터 인민군이 퇴각하였고, 10. 7. 장성경찰서가 수복되었다. 강원도경찰국, 『영광의 서곡 - 강원경찰전사 제1집』, 1952년, 242~244쪽.

7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10. 8.); 『참고인 정○○ 진술녹취』(2008.10.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8. 23.)

79)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10. 8.)

8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10. 8.)

81) 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1973. 7.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삼척군 노곡면 금계리가 근덕면에 편입됨. 『임병창 제적등본』

82) 근덕면 교곡리 양지마을 서쪽에 있는 재로 노곡면과 접한다. 강원도삼척시청, 『삼척시지』, 1997, 72쪽.

83) 『신청인 임병창 진술조서』(2008. 8. 22.);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1. 25.);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25.) 가해주체에 대해 신청인 임병창(사건 이후 출생)은 노곡지서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홍○○은 정훈부대에게 희생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정훈부대, 즉 정훈국은 국방부 소속으로 대민 교육, 사상, 지도 등을 담당하며, 소속 군인들은 수복지구에 들어가 좌익인사를 색출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84) 『신청인 임병창 진술조서』(2008. 8. 22.);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1. 25.)

제 3 권

시 금계리 인민위원장을 하던 홍봉황과 세포위원장을 했던 김만배 등도 노곡지서로 갔다가⁸⁵⁾ 얼마 후 지서에 구금되어 있던 노곡면 주민 10~20명과 함께 드림재에서 집단으로 총살당했다고 한다.⁸⁶⁾

진실규명대상자 임연식의 제사일은 그가 노곡지서로 자진출두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음력 10. 12.이며 그를 비롯한 금계리 주민들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으나 참고인 홍○○은 당시 집단희생당한 자의 일부 가족들이 시신을 밤에 몰래 찾아가 옷을 보고 수습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⁸⁷⁾

바) 삼척읍 정라진항 김동형·김옥이 희생사건(다-8807, 다-6838(1), 1950. 12. 말경)

1950. 12. 말경 원덕면 장호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동형(金東炯, 남, 27세)과 삼척읍 남양리 통베기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옥이(金玉伊, 여, 39세)를 비롯한 20여 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정라진항⁸⁸⁾ 앞바다에서 집단으로 수장당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며 가해주체는 삼척경찰서 정라지서 경찰들로 판단된다.

진실규명대상자 김동형은 어업에 종사하며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자로 인민군 점령기에 피난가지 못하고 마을에 머물러 있던 중 장호리 자위대장을 맡았다.⁸⁹⁾ 그는 국군선발대가 마을에 들어오자 태극기를 흔들고 귀가한 당일 선발대에 의해 정라지서로 연행되어 20여 명과 함께 3개월 간 구금되어 있다가⁹⁰⁾ 12월 말경 정라진항 앞바다에서 희생당했다.⁹¹⁾

진실규명대상자 김옥이는 이발소를 경영하던 남편과 함께 삼척읍 남양리에서 거주하며 인민군 점령기에 남양리 여맹부위원장을 맡았다가⁹²⁾ 수복 후 부역혐의로 군인 또는

85) 참고인 이○○은 이들이 연행되어 갔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홍○○은 이들이 자수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25.);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1. 25.)

86) 「신청인 임병창 진술조서」(2008. 8. 22.);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1. 25.) 당시 희생인원에 대해 신청인 임병창은 10여 명, 참고인 홍○○은 20여 명이라고 진술하였다.

87)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1. 25.)

88) 현재 삼척항.

89) 「신청인 김부현 진술조서」(2008. 8. 25.): 김동형은 장호리 인민위원장 김상범의 권유로 치안대 활동을 했는데, 당시 주민들이 인민위원회에 끌려가면 나서서 구명을 해주었다고 한다. 「참고인 남○○ 진술조서」(2008. 8. 25.)

90) 김동형의 부모님이 정라지서로 면회를 갔으나 면회 시켜주지 않아 되돌아왔다. 「신청인 김부현 진술조서」(2008. 8. 25.), 한편 신청인은 형 김동형이 끌려간 후 3개월 가량 정라지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희생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김부현 전화면담」(2010. 3. 27.)

91) 「신청인 김부현 진술조서」(2008. 8. 25.); 「참고인 남○○ 진술조서」(2008. 8. 25.);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8. 8. 25.);

92) 당시 남양리 여맹위원장은 오△△으로 평소 김옥이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6.)

경찰에 의해 정라지서로 연행된 후 정라진항에서 수장된 것으로 추정된다.⁹³⁾

정라진항 인근 주민들은 경찰이 배 두 척으로 정라진항 앞바다에 나가 한척에 사람들을 가득 옮겨 놓고 난 후 배에 구멍을 내어 수장을 시켰으며, 경찰들은 나머지 한척을 타고 돌아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⁹⁴⁾ 또한 당시 경찰로 재직한 참고인 김○○는 정라진항 앞바다로 30~40명이 승선하는 어선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역혐의자들을 싣고 나가 희생시켰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⁹⁵⁾

사) 근덕면 근덕지서 김진만 등 7인 희생사건(다-6469, 다-8808, 다-6838, 1951. 1. 8.~ 1. 10.경)

1950. 초 겨울경 원덕면의 원덕, 오저, 장호지서 경찰들은 부역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1차 조사 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근덕지서로 압송하여 지서 옆 창고에 구금하였다. 당시 근덕지서 옆 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자들은 근덕면 인근에서 희생당하거나 2차 조사를 거쳐 삼척경찰서로 압송되었다.⁹⁶⁾ 근덕지서로 연행된 부역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삼척경찰서 사찰계에서 파견 나온 형사 박근우, 김윤하 등이 진행하였으며 이들이 부역자들의 생사를 결정하였다.⁹⁷⁾

1951. 1. 8~1. 10.경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연행되어 근덕면 근덕지서 인근 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원덕면 용화리⁹⁸⁾ 주민 진실규명대상자 김진만(金鎭萬, 남, 35세), 이오봉(李五鳳, 남, 26세), 윤옥출(尹玉出, 여, 37세), 전일영(全一瑛, 남, 29세), 전순덕(全舜德, 남, 37세), 정귀연(鄭貴然, 남, 37세)이 희생당했으며, 진실규명대상자 김봉하(金鳳河, 남, 32세)와 미신청자 황규식(黃奎植, 남, 33세)도 맹방백사장(근덕면 하맹방리)과 팔송정(근덕면 교가리~광태리) 뒷산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삼척경찰서 근덕지서 경찰로 추정되며, 진실규명대상자 중 일부의 희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덕면 용화리 바른골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전일영은 추석 무렵 인민군에게 받

93) 「신청인 강태용 진술조서」(2008. 8. 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6.)

94) 「참고인 남○○ 진술조서」(2008. 8. 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13.)

9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13.)

96) 「참고인 정○○ 진술녹취 및 진술조서」(2008. 8. 22.)

97) 당시 경찰로 재직한 참고인 정○○는 부역혐의자의 조사 및 구금 과정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이들의 구체적 희생장소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 진술녹취 및 진술조서」(2008. 8. 22.)

98) 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대통령령 제10050호(1980. 12. 1.)로 삼척군 원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대통령령 제12007호(1989. 1. 1.)에 의거 삼척군 원덕읍 용화리와 장호리가 근덕면으로 편입됨. 법률 제4774호(1995. 1. 1.)로 삼척시와 삼척군을 통합하여 삼척시를 설치함.

제 3 권

을 해주고 길을 가르쳐주었다는 이유로 1950. 11.경 저녁에 대한청년단원에 의해 장호지서로 연행 후 근덕지서로 압송되어 창고에 구금되었다. 그러나 1. 9.(음력 12. 2.) 경 그의 어머니가 밥을 해 찾아가니 창고에 1명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⁹⁹⁾ 1951. 3.경, 전일영의 부인 박순녀가 당시 끌려간 사람들이 맹방백사장에서 희생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고모부 등과 함께 찾아가 한복저고리 단추를 보고 전일영의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백사장 스탈 10여 미터의 구덩이에 시신이 꽂 차있었다고 한다.¹⁰⁰⁾ 전일영의 제사일은 음력 12. 2.이다.

원덕면 용화리 바른골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정귀연은 용화리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근덕지서로 연행되어 구금된 후¹⁰¹⁾ 팔송정 뒷산에서 희생당했으며,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고 제사일은 음력 11. 3.이다.¹⁰²⁾

원덕면 용화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진만은 인민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복을 입고 총을 멘 이들에게 근덕지서 앞 창고로 연행되어 구금된 후 광태리 팔송정 뒷산에서 희생당했다.¹⁰³⁾ 김진만의 시신은 얼굴을 알아본 인근마을 주민이 가족에게 전해주어 수습하였으며 제사일은 음력 11. 30.이다.¹⁰⁴⁾

원덕면 용화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이오봉, 윤옥출,¹⁰⁵⁾ 전순덕, 김봉하와 미신청자 황규식 등도 당시 부역혐의로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며 이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이 맹방백사장과 팔송정 뒷산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보여진다.¹⁰⁶⁾

99) 『참고인 박○○ 진술녹취』(2007. 12. 29.)

100) 『참고인 박○○ 진술녹취』(2007. 12. 29.);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8. 25.); 『참고인 전○○ 진술조서』(2010. 1. 25.)

101) 정귀연이 근덕지서에 구금된 후 그의 여동생이 밥을 해 날랐으나 어느 날 찾아가니 밥을 받지 않았으며, 구금된 자들이 팔송정에서 희생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신청인 정석연 진술조서』(2008. 8. 25.)

102) 『신청인 정석연 진술조서』(2008. 8. 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8.); 『참고인 김○○ 진술조서(1차)』(2008. 8. 25.) 한편, 신청인 정석연이 사망하여 진실규명대상자 정귀연의 제사일이 연행일 또는 희생일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진실규명대상자 김진만의 제사를 지내는 김일화와 진실규명대상자 전일영의 제사를 지내는 신청인 전준용의 진술을 기준으로 근덕지서 희생사건 발생시기를 1951. 1. 8~10.경으로 판단하였다.

103) 『참고인 김○○진술조서』(2010. 1. 28.) 참고인의 아버지가 대한청년단장으로 활동하다 빨치산에게 총살당했으나 이후 숙부 김진만이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여 참고인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 진실화해위원회, 『강원영동지역 적대세력사건』, 제118차 전원위원회 (2009. 12. 15.)

10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8.);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1. 28.); 『참고인 김○○ 진술조서(2차)』(2010. 1. 26.)

105) 윤옥출의 남편 최금대는 용화리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8.)

106) 당시 희생인원에 대해 신청인 강태용, 전준용은 각각 수 십여 명, 100~150여 명, 참고인 박○○와 전○○은 맹방백사장 구덩이에서 많은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강태용 진술조서』(2008. 8. 25.); 『신청인 전준용 진술녹취』(2007. 12. 29.); 『참고인 박○○ 진술녹취』(2007. 12. 29.); 『참고인 전○○

2) 영월군

해방 후 영월군은 좌우의 대립이 심했던 지역으로 이들은 각각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며 마찰을 빚었다. 우익계는 1945. 8. 영월청년회를 결성하여 치안유지회를 조직하였으며, 좌익계는 상동광산의 항일운동가 이필을 중심으로 조직을 규합하였다. 이에 1947. 3·1절 기념 축하행사에서는 좌우익 단체들이 별도로 기념식을 치르다가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월경찰이 1948. 사찰계를 신설하여 좌익인사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자 좌익계 인사들은 월북 또는 입산하여 하동면 목우산을 중심으로 상동면 백운산, 영월읍 완택산, 수주면 사자산에 아지트를 두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1949. 11.~1950. 2. 초순경 경찰에 검거되었다.¹⁰⁷⁾

전쟁 발발 후 수도사단 제18연대는 영월을 1950. 9. 28. 탈환하였고,¹⁰⁸⁾ 영월경찰서는 9. 30. 강원경찰국을 비롯한 춘천, 원주, 평창, 정선경찰서 등 각 서의 부대와 함께 청송, 영양을 거쳐 영월을 수복했다.¹⁰⁹⁾

영월군의 한국전쟁시기 처단자 수는 226명으로 강원남부지역 중 가장 많았다.¹¹⁰⁾ 수복 당시 영월군내에는 주천지서를 비롯하여 9개의 지서가 있었는데,¹¹¹⁾ 각 지서는 부역혐의자들을 연행하여 자체적으로 살해하거나¹¹²⁾ 영월경찰서(서장 이대인)로 압송하였다.¹¹³⁾ 당시 주천지서 경찰로 재직하던 참고인 우○○은 관내 부역혐의자 9명 정도를 영월경찰서로 압송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¹¹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영월지역의 진실규명신청 사건은 3건이나 당시 마을에 흐르던 개울을 기준으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속했던 천평리가 현재 영월군으로 편입되어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희생사건도 영월군과 함께 정리하였다. 이에 진실규명신청 사건은 총 4건이고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8명이다.

진술조서」(2010. 1. 25.)

107) 『영월군지』, 1992, 205~207쪽.

1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1971, 63쪽.

109) 강원향토사연구회, 『영월군지』, 1992, 217쪽.

110) 내무부 정보과, 「업무지시」1970. 1. 7., 국가기록원: 강원도경찰국, 「업무지시 (응신)」, 1970. 1. 7., 국가기록원

111) 강원경찰청, 『강원경찰발전사 하권』, 2002, 376-382쪽: 「참고인 우○○ 진술조서」(2010. 4. 15.)

112) 주천지서의 경우 경찰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 청년방위대원들이 부역혐의자들을 지서에 구금해 놓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들은 이들을 지서 뒷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서면지서에서도 부역혐의자들 자체적으로 처리 한 바 있다. 「참고인 우○○ 진술조서」(2010. 4. 15.)

113) 「참고인 우○○ 진술조서」(2010. 4. 15.)

114) 「참고인 우○○ 진술조서」(2010. 4. 15.)

가)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정홍일 일가 희생사건(다-9420, 1949. 2.경)

1949. 2.(음력 1.)경, 춘양면 천평리 각희골(각기골)과 고무라골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정홍일(丁洪一, 남, 53세), 김동굴(金東屈, 여, 50세)이 공비토벌대에게 좌익혐의로 희생당했으며, 진실규명대상자 정춘식(丁春植, 남, 20세)과 마을주민 다수도 당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발생 한 달 전, 빨치산들이 덕구리 2구 이장 황기석과 임병태의 조부를 총살하고 가택에 방화한 바 있는데¹¹⁵⁾ 고무라골 거주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자 고무라골에 거주하던 정씨 일가도 ‘빨갱이(간첩)’로 몰렸다.¹¹⁶⁾ 진실규명대상자 정홍일의 딸인 참고인 정○은 사건발생 전날 “니 하고 만섭이하고 어찌냐, 군인들이 우리 다 끌어가서 죽인단다. 빨갱이라 그래서 다 죽인단다.”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들었다. 사건 당일 오전, 많은 수의 군인들이 골로 들어오자 참고인이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잠이 들어 깨어보니 동네가 다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¹¹⁷⁾

가해자의 소속을 특정할 수 없으나 여순사건¹¹⁸⁾ 이후 잔여 반군과 지방좌익 약 150여 명이 1949. 2.경 강원도 울진군과 경북접경지대에 진입, 태백산에 입산하자 이들 일부는 국군이 토벌한바,¹¹⁹⁾ 본 사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희골에서 끌려간 진실규명대상자 정홍일이 춘양면 금정골에서 희생당했다는 말을

115) “덕구 재념으면 바로 금정인데 거기서 빨치산들이 와가지고 덕구리 2구 이장 황기석이랑 임병태네 종조부네 불을 놓고 다 썼어. 빨치산 사람들이 그리고 가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서류를 빠뜨리고 갔는데 거기 고무라골 사람들이 전부 다 보도연맹인가 뭔가 암턴 도장이 찍혀있었다. 그래서 거기사람들을 다 소탕했다고 그러더라고, 전부 빨갱이라 그래서. 고무라골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고.” 『참고인 권○○ 진술조서』(2010. 2. 24.) “고무라골에 살던 빨치산 부대들한테 덕구리가 습격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은적이 있어...군인들이 거기 고무라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불을 싸질러 버린거야.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어디서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덕구리에서 고무라골 사람이 둘 죽었다고.”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2. 24.)

11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2. 24.); 『참고인 권○○ 진술조서』(2010. 2. 24.)

117)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1. 27.)

118) 1948. 10. 19.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제주도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진압군 지휘부는 38선 대북 경비 병력과 제주도 진압 병력을 제외한 남한 지역 모든 병력을 동원해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948. 10. 27.경 여수를 탈환했다. 반군과 지방좌익들은 지리산으로 입산해 기존 지방 유격대와 합류해 대규모 유격대를 구성하고 일부는 오대산을 목표로 태백산지역으로 북상하였다. 육군본부 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13~1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 459쪽;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1967, 459~460쪽; 1948년 10월 27일까지의 진압 작전에는 총 140명의 장교와 4,732명의 군인들이 참가했다. 노영기, 『여순사건과 육군의 변화』, 『전남사학』22집, 2004, 266쪽;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1권, 2005, 733~735쪽; 육군본부 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23쪽

119) 육군본부 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23쪽

전해들은 큰아들 정팔암이 금정골 구덩이에서 허리끈을 보고 시신을 찾아와 수습해왔다.¹²⁰⁾ 김동굴은 덕구리로 끌려가 마을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성명 미상의 40대 남성과 함께 군인 5명에게 총살당한 후 마을주민에 의해 시신이 수습되었다.¹²¹⁾ 참고인 정○은 오빠 정춘식도 당시 희생당했으나 그 장소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그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¹²²⁾

한편, 참고인들은 당시 고무라골에 1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마을주민들이 희생당하고 가옥이 불탔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씨일가 3명 이외에도 피해를 당한 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참고인의 진술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¹²³⁾

나) 북면 문곡리 이태인 희생사건(다-6240, 1950. 10. 26.경)

1950. 10. 26.(음력 9. 16.)경 서면 후탄리¹²⁴⁾ 연정마을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이태인(李泰仁, 남, 46세, 이명 이영하)¹²⁵⁾과 북쌍리 들골에 거주하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목영근(睦英根, 남, 40세 이상)이 쌍용지서로 자진출두한 후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며, 들골에 거주하던 미신청자 신승철(辛承哲, 남, 29-30세), 안양길(安兩吉, 남, 40세 이상)¹²⁶⁾도 당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¹²⁷⁾ 안양길의 소실(小室)(여, 28세가량)은 부역혐의로 서면지서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¹²⁸⁾

안양길의 소실을 제외한 이들의 희생장소는 명확하지 않으나 참고인들이 영월읍 영흥리 장릉(능말) 소나기재 너머 문곡리 두목골짜기에서 이들이 희생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어 이들이 두목골짜기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¹²⁹⁾ 당시 희생규모에 대해 신청

120)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1. 27.)

121)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1. 27.); 『참고인 신○○ 진술조서』(2010. 2. 2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2. 24.)

122)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1. 27.)

123) 참고인 권○○은 고무라골에 소탕작전이 실시되어 10가구 이상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희생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김○○은 고무라골 거주자들이 모두 간첩으로 몰려 희생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10. 2. 2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2. 24.)

124) 현재,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5) 진실규명대상자 이태인의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생년월일은 신청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한규 제적등본』

126) 신청인 이한규(당시 4세)는 안양길의 이름을 '안영길'이라 진술하였고, 참고인 우○○(당시 26세)은 '안양길'로 진술하였다. 이에, 전쟁 시기 나이가 더 많았던 우○○의 진술에 비중을 두었다.

127) 참고인 우○○은 목영근과 안양길이 수복 직후 국군에게 끌려가 희생당했다고 전해 들었으나, 목영근과 안양길의 연행과정을 각각 목격한 참고인 업○○과 강○○의 진술에 의거하여 이들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인 우○○ 진술조서』(2010. 4. 15.);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8. 8. 26.)

128) 『참고인 우○○ 진술조서』(2010. 4. 15.)

제 3 권

인 이한규는 수 백명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강○○, 우○○, 엄○○도 당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¹³⁰⁾ 진실규명대상자와 상기 미신청자 이외에도 상당수의 부역협약자들이 두목골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체적인 희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진실규명대상자 이태인은 농사 및 목수 일을 하였으며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¹³¹⁾ 그는 마을주민들에게 의용군 자원 및 인민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고 인민군 식량을 나르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마을에서 인심을 잃었다고 한다. 1950. 10. 26.경 이태인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서면 북쌍리 들골¹³²⁾에 거주하던 목서방과 함께 쌍용지서로 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마을주민 엄학선에게 “지서에서 불러서 가네”라고 말했다.¹³³⁾

당시 북쌍리에 거주하며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미신청자 안양길과 신승철도 이태인과 비슷한 시기에 경찰복을 입은 경찰 3~4명에게 연행되었는데 이후 이들을 비롯한 영월군 주민들이 한 줄로 엮여 끌려가는 것이 목격되었다.¹³⁴⁾

다) 수주면 무릉리 김수규 희생사건(다-7924, 1950. 10. 말경)

1950. 10. 말경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아리골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수규(金壽圭, 남, 57세)와 미신청자 김관수(남, 23세가량), 김관우(남, 김관수의 형제), 무릉리 도곡 마을에 거주하던 미신청자 송갑현(남, 40세가량), 도△△ 등 5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협의로 수주지서(도원리)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된다.

희생장소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신청자 김관수의 시신이 무릉리 강변에서 수습된 바 김수규를 비롯한 희생자들이 무릉리 강변에서 희생당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¹³⁵⁾ 이들의 희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진실규명대상자 김수규는 농업에 종사하며 마을구장으로 활동하다 인민군 점령기에

129)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8. 8. 26.)

130) 「신청인 이한규 진술조서」(2008. 2. 19.);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8. 8. 26.); 「참고인 엄○○ 진술조서」(2010. 2. 25.)

131) 「신청인 이한규 진술조서」(2008. 2. 19.)

132) 현재, 영월군 남면 북쌍리. 대통령령 제6542호(1973. 7. 1.)로 서면 북쌍리가 남면으로 편입됨.

133) 「참고인 엄○○진술조서」(2010. 2. 25.)

134)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8. 8. 2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2. 25.); 「참고인 신○○ 진술조서」(2010. 2. 25.)

135) 이들의 희생장소에 대해 참고인 박○○은 무릉리 강변, 참고인 신○○은 도원리 강변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희생자 김관수의 시신이 무릉리 개울가에서 수습되었다고 진술한 박○○의 진술에 비중을 두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1. 14.); 「참고인 신○○ 진술조서」(2010. 2. 25.)

마을주민들의 권유로 아리골 인민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이유로 1950. 10. 말경 청년방위대(이하 '청방')원 2명이 김수규를 청방사무실로 끌고 갔고¹³⁶⁾ 이후 수주지서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규명대상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인민위원회 일을 돕던 미신청자 김관수도 당시 무릉리 강변에서 희생당해 시신을 수습하였으며,¹³⁷⁾ 김관우와 수주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한 송갑현, 도△△도 수주지서로 연행된 후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¹³⁸⁾

라) 수주면 강림리 엄창현 희생사건(다-2878, 1950. 11. 24.경)

1950. 11. 24.(음력 10. 15.) 이후 수주면 강림리¹³⁹⁾ 1구 아천(아시내)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엄창현(嚴昌鉉, 남, 35세)이 수주지서로 연행되어 횡성경찰서¹⁴⁰⁾로 이송된 후 희생당했다. 당시 강림리 3구에 거주하던 송종철과 정진영도 함께 수주지서로 연행되어 횡성경찰서로 이송되었으나 이들은 생환하였다.¹⁴¹⁾

진실규명대상자 엄창현은 일제강점기부터 면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인민군 점령기에도 지속적으로 강림출장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¹⁴²⁾ 이에, 의용경찰이 1950. 11. 24. 엄창현과 강림면 인민위원장 송종철, 정진영을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강림지서로 연행한 후 횡성경찰서로 압송하였는데 엄창현만 횡성경찰서에 계속 구금되어 있다가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희생장소는 명확하지 않다. 진실규명대상자 엄창현의 제사일은 음력 10. 18.로 연행당한 3일째 날에 지내고 있다.

엄창현에 앞서 일제강점기에 수주면 강림리 1구 구장으로 활동한 미신청자 박△△, 인민군 점령기 2구 인민위원장 허정, 4구 인민위원장 이시우 등이 부역혐의로 의용경찰에

136) 참고인 박○○도 청방에게 끌려가 안동까지 인민군의 군량미를 실어 주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1. 14.)

137) 김관수는 대한청년단장으로 활동했으나 부역혐의로 희생당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1. 14.)

138) 『참고인 박○○진술조서』(2009. 1. 14.); 『참고인 신○○ 진술조서』(2010. 2. 25.)

139) 현재, 횡성군 강림면, 법률 제1175호(1963.1.1)로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가 횡성군 안흥면으로 편입되었으며, 횡성군 조례 제1254호(1989.4.1.)로 횡성군 안흥면 강림출장소 관할 3개 리가 강림면으로 승격됨. 현재 강림면은 비교적 오지에 속하는 곳으로 치악산 국립공원이 전체 면적의 58%에 이르며 동쪽으로 원주시, 서쪽과 남쪽으로 영월군, 북쪽으로 횡성군 안흥면과 접한다.

140) 1946. 6. 영월경찰서 강림지서가 설치된 후 1948. 1. 횡성경찰서 강림지서로 편입되었음. 강원경찰청, 『강원경찰발전사 하권』, 2002, 553쪽.

141) 송종철의 동생이 검사였기 때문에 석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신청인 엄태홍 진술조서』(2007. 3. 15.)

142) 엄창현의 재직사실을 조회하였으나 영월군의 읍면사령부('45. 1. ~'65. 12. 31.)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재직사실 확인 요청(다-2878)』, 2010. 2. 18; 영월군(자치행정과-2586), 『재직사실 확인 통보(다-2878)』, 2010. 3. 3.

제 3 권

의해 강림지서로 연행되어 고둔치재(고둔치재, 수주면 부곡리~원주군 행구리)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⁴³⁾

3) 원주군

원주군은 좌익의 세가 강해 전쟁 이전에는 유격대 활동, 전쟁 발발 직후에는 국민보도연맹사건, 수복 후에는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 민간인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1949. 12. 중순경에는 원주 유격중대 남로당 강원도당 군사위원부 위원장 임병춘의 지휘 하에 문막면 거주 안택선을 중심으로 유격부대가 편성되어 활동하다 경찰의 토벌전으로 중대장 안택선이 생포되고 나머지 대원 50여 명도 검거된 바 있다.¹⁴⁴⁾

전쟁 발발 직후에는 판부면 가리파재 등에서 국민보도연맹원 수 십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으며,¹⁴⁵⁾ 원주군이 6사단에 의해 수복된 1950. 9. 30.~ 10. 1.경 이후에는¹⁴⁶⁾ 좌익인사들을 연행·조사하여 혐의가 '짙은 자'들이 동화리 세고개에서 총살되었다.¹⁴⁷⁾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원주군의 진실규명신청 사건은 총 4건으로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8명이고, 이 중 2건은 진실규명불능 사건이므로 별도 서술하였다.

가) 문막면 문막지서 최병남 일가 희생사건(다-235, 1950. 12. 말경)

문막면은 제2의 모스크바로 불릴 만큼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이었다.¹⁴⁸⁾ 이는 문막포구를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외부문물의 접촉기회가 잦았고, 넓은 평야로 인해 부농들이 많아 유학을 다녀온 지식층들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에도 서북청년단 등과의 치열한 좌우대립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좌익인사로 구성되었다.¹⁴⁹⁾

1950. 12. 말경 문막면 문막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최병남(崔炳南, 남, 47세)과 김보배(여, 31세)¹⁵⁰⁾가 문막지서에 구금된 후 지서에 구금된 다른 이들과 함께 희생당한

143) 「신청인 엄태홍 진술조서」(2007. 3. 15.);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8. 8. 18.)

144) 강원도경찰국, 『영광의 서곡(강원경찰전사 제1집)』, 1952, 89-90쪽.

145) 진실화해위원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안성, 회성, 안양, 수원, 인천, 평택, 원주)』(제113차 전원위원회, 2009. 10. 20.)

146) 6사단 제3대대는 연대선발대로 원주로 전진한 후 북진하여 횡성으로까지 진출하였고, 제19연대는 사단의 예비연대로 원주외곽지역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와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제2연대 제1대대는 10. 1. 원주 시내에 진입하여 홍천으로 진출하였다. 보병 제6사단, 『청성역사』, 1978, 158-167

147) 문막읍사편찬위원회, 『문막읍사』, 2003, 316쪽.

148)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4. 15.); 문막읍사편찬위원회, 『문막읍사』, 2003, 315쪽.

149) 문막읍사편찬위원회, 『문막읍사』, 2003, 315쪽; 일제강점기부터 설립된 금융조합에도 좌익인사가 많았다고 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14.)

150) 진실규명대상자 최병남과 김보배의 제적등본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규명대상자 김보배는 남편 최병옥(방앗간 운영¹⁵¹)이 인민군 퇴각기에 월북을 했고, 김보배도 인민군 점령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1950. 12. 말경 오전 경찰에 의해 문막지서로 연행되었다.¹⁵² 진실규명대상자 최병남은 해질녘까지 제수 김보배가 돌아오지 않아 문막지서로 찾아갔으나 최병남 자신도 생환하지 못했다.¹⁵³ 신청인은 당시 문막지서에 연행되어 구금되어 있던 자들이 많았고 이들이 집단 희생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으나, 희생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¹⁵⁴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참고인 진술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진실규명대상자들의 가족이 월북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김보배가 부역혐의자였던 정황으로 볼 때, 이들이 문막지서에 구금되어 다른 구금자들과 함께 장소 불상에서 희생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주읍 단계동 손어봉 부자 희생사건(다-10632, 1950. 12. 말경)

1950. 12. 말경 원주읍 단계동 백간마을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손어봉(孫魚鳳, 남, 43세, 이명 손영구)과 손상룡(孫相龍, 남, 18세), 미신청자 손수천(孫壽天, 남, 미상)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미상의 장소에서 희생당했다.

진실규명대상자 손어봉은 봉산동에 거주하다 단계동 백간마을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중 인민군 점령기에 동생의 부탁으로 세포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수복 후(추수가 끝난 후 쌀쌀한 시기) 처벌이 두려워 처가인 지정면 보통리로 피신하였으나 지정면에 있는 지서¹⁵⁵로 연행되어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¹⁵⁶ 이튿날 손어봉은 자신의 부역혐의 관련된 신고를 한다며 역전지서로 자진출석하며 “죄진 것도 없는데 벌일 있겠냐”는 말을 남겼으나 생환하지 못했다. 당시 손어봉의 큰아들 손상룡도 부역혐의로 경찰서에 잡혀가

회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제적등본 발급 및 참고인 연락처 협조요청(다-235관련)」, 2010. 1. 15.(조사 1팀-57); 문막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협조자료 송부」, 2010. 1. 18.(문막읍-759)

151)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2. 4.)

152) 신청인은 김보배의 구체적인 부역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신청인 최재익 진술조서」(2007. 4. 17.) 참고 인들은 최병옥의 월북에 대해 알지 못했으나, 그가 좌익사상을 가진 자로 전쟁 중에 행방불명됐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2. 4.);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2. 4.)

153) 「신청인 최재익 진술조서」(2007. 4. 17.)

154) 「신청인 최재익 진술조서」(2007. 4. 17.)

155) 보통리를 관할하던 곳은 지정지서였으나 전쟁 시 청사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손어봉이 정확히 어느 지서로 끌려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강원경찰청, 「강원경찰발전사 하권」, 2002, 133쪽.

156) 당시 손어봉이 구타로 인해 몸이 부어있자 마을주민들이 똥물을 마시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신청인 손상훈 진술조서」(2008. 8. 28.);

제 3 권

돌아오지 못했다.¹⁵⁷⁾

또한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미신청자 손수천도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의해 원주경찰서에 구금되었는데¹⁵⁸⁾ 아군 후퇴기에 양안치재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이 돌아 그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¹⁵⁹⁾

4) 횡성군

해방 후 횡성군에는 민청에 가입된 이들이 8할일 정도로 좌익세가 강해 서북청년단원과 대립하였는데, 그 와중에 민청원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횡성군에는 국민보도연맹원의 수가 많았으며, 전쟁발발 직후 청일지서의 경우 보도연맹원들을 청일국민학교 인근 골짜기로 끌고 가 살해하였다.¹⁶⁰⁾ 지서뿐만 아니라 횡성경찰서도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하였는데, 1950. 7. 1. 경북지역으로 철수하면서¹⁶¹⁾ 이들이 인민군에 협조할 것을 우려하여 주요 인물 20명 정도를 차에 태워 영천까지 데리고 간 후 집단 희생시켰다고 한다.¹⁶²⁾

횡성군은 1950. 9. 30. 6사단 제2연대 3대대가 진입하여 수복이 시작되었으나,¹⁶³⁾ 횡성경찰서는 1950. 10. 25. 수복되었다. 횡성경찰서는 수복 후 경찰서 건물이 파괴되어 있자 횡성읍 창고에 임시청사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부역혐의자들을 임시청사 옆 창고에 구금하였다. 참고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보현산 전투(1950. 8. 말)에서 부상을 당해 약 2개월 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복귀하여 청일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미 지서 자체적으로 일부 부역혐의자들이 처리되었고, 일부 부역혐의자들은 지서에서 경찰서로 압송되었으며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원주법원으로 넘겨졌다고 한다.¹⁶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횡성군의 진실규명신청사건은 2건으로 진실규명대상자는 2명이다.

157) 「신청인 손상훈 진술조서」(2008. 8. 28.); 「참고인 고○○ 진술조서」(2010. 2. 5); 「참고인 변○○ 진술조서」(2010. 2. 5)

158) 「참고인 손○○ 진술조서」(2010. 2. 6.) ; 「참고인 고○○ 진술조서」(2010. 2. 5); 「참고인 변○○ 진술조서」(2010. 2. 5)

159) 「참고인 손○○ 진술조서」(2010. 2. 6.)

160)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4. 14.)

161) 강원경찰청, 『강원경찰발전사 하권』, 2002, 548쪽.

162) 「참고인 전○○ 진술조서」(2010. 4. 14.)

163) 보병 제6사단, 『청성역사』, 1978, 157~158쪽.

16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4. 14.)

가) 서원면 옥계리 임상옥 희생사건(다-379, 1950. 11. 초경)

1950. 11. 초경 서원면 옥계리 옥지기 마을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임상옥(林相玉, 남, 31세)이 인민군 점령기에 마을반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의용경찰에게¹⁶⁵⁾ 끌려간 후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산리에 거주했던 성명 미상자 1명과 옥계리 거주자 임태식도 끌려갔으나 임태식은 심하게 구타당한 후 생환하였다.¹⁶⁶⁾

임상옥은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 인민군 점령기에 마을사람의 권유로 반장을 맡았다.¹⁶⁷⁾ 1950. 11. 초경 점심 무렵 인근마을 주민 박△△이 조를 털고 있던 임상옥을 찾아와 “자네, 누가 찾아왔네”라며 데리고 갔는데 며칠 후 마을주민 임상춘이 그가 충북 음성(원주 경유) 방향으로 여행되는 것을 목격하였다.¹⁶⁸⁾

참고인 이○○은 황성에서 원주법원으로 부역자들을 넘기면 죽는다고 하여 비슷한 시기 청일면 유동리 골말 반장으로 활동하던 윤공선이 청일지서로 여행돼 원주경찰서를 거쳐 원주법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해 빼 준적이 있다고 한다.¹⁶⁹⁾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임상옥이 원주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또는 이송당한 후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⁷⁰⁾

한편, 1950. 9. 말~10. 초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임상근(남, 50~60세)도 지방좌익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복 후 국군에게 연행되어 장소불상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⁷¹⁾

나) 청일면 유평리 정원영 희생사건(다-9406, 1951. 3. 중순경)

1951. 3. 중순경 청일면 유평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정원영(鄭元永, 남, 60세가 량)¹⁷²⁾이 국군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 황성군의 2차 수복일이 1951. 3.

165)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치안대원에게 끌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황성경찰서 청일지서에 근무하던 참고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발생시기 황성경찰서 관내에는 치안대가 없었고, 사복을 입은 의용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근무하였다고 한다. 이에 의용경찰에게 끌려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 임정섭 진술조서』(2008. 8. 1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4. 14.)

166) 『신청인 임정섭 진술조서』(2008. 8. 18.) 당시 생환한 임태식은 2008년 봄 사망했다.

167) 『신청인 임정섭 진술조서』(2008. 8. 18.)

168) 임상춘은 2009년 봄에 암으로 사망하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16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4. 14.) 참고인 이○○은 당시 청일지서 소속 경찰로 근무했다.

170) 국가기록원에서 임상옥의 재판기록을 검색하였으나, 판결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황성경찰서에 보안기록조회를 의뢰하였으나, 진실규명대상자 임상옥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조사1팀-304), 『황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보안기록조회 의뢰』, 2010. 4. 12.; 황성경찰서(정보보안과-1011), 『황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보안기록조회 조회 회보』, 2010. 4. 19.

171) 『참고인 임○○·김○○ 진술조서』(2010. 2. 25.)

172) 진실규명대상자 정원영의 제적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정인화(아들)의 제적부에서 그의 사망일시를 확인하였으나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정확

20.¹⁷³⁾ 경인바, 가해자는 당시 횡성을 수복하던 군부대원으로 판단된다.

진실규명대상자 정원영은 농업에 종사하며 16명의 대가족과 함께 지냈는데 2차 수복 시기 국군이¹⁷⁴⁾ 집에 찾아와 부대 일을 시킨다며 며느리 둘과 손녀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대신 부인을 보냈다. 며칠 후 국군 2명이 다시 찾아와 가족 중 젊은 여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¹⁷⁵⁾ 정원영이 재차 거절하였고 방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군인 1명이 공포탄 2발을 쏘았다. 그러자 정원영과 대화를 나누던 군인이 그에게 ‘빨갱이’라며 손을 들고 나갈 것을 명령하여 돌아서 나가려던 순간 군인이 양다리에 총을 난사하였다. 이웃 주민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정원영을 청일면 고시리 군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과다출혈로 다음 날 사망하였다. 사건발생 2~3일 후 헌병 2명이 찾아와 그의 희생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갔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¹⁷⁶⁾

나. 진실규명불능 사건

1) 원주군 원주읍 봉산동 신학준 일가 희생사건(다-1063, 1950. 12. ~1951. 1.경)

진실규명대상자 신학준(辛鶴俊, 남, 53세), 김경준(金瓊俊, 여, 56세), 신성준(辛性俊, 남, 44세, 이명 신현준)은 원주읍 봉산동¹⁷⁷⁾ 아래 화실에 함께 거주하며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였다.¹⁷⁸⁾

신청인 신승철은 전쟁 중 군에 복무하고 돌아오니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마을 주민에게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인민군의 밥을 지어주었다는 이유로 수복 후 경찰에 연행되어 총살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¹⁷⁹⁾ 그러나 참고인 조사결과 이들의 희생경위를 인지하고 있는 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다만, 참고인 홍○○이 청방에 다녀

한 나이는 모르나 60세가량 이라고 진술하였다. 『정인화 제적등본』

173) 강원경찰청, 『강원경찰발전사 하권』, 2002, 548쪽.

174) 가해군인이 CIC 소속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 8. 16.)

175) 당시 마을에는 청년보다 노인, 부녀자, 어린아이들의 주민구성 비율이 높았는데, 미군과 한국군이 젊은 여성들을 찾아다녀 은신해 있기도 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 8. 16.)

176) 『신청인 정창화 진술조서』(2007. 8. 1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 8. 1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 8. 16.)

177) 현재, 원주시 봉산동. 법률 제372호(1955. 9. 1) 로 원주군 원주읍이 시로 승격됨.

178)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2. 5.); 『신청인 신○○ 진술조서』(2008. 8. 28.) 신청인의 아버지 신성준의 다리가 불편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아버지 신학준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179) 신청인 신승철은 1차로 6사단에 복무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군경에 희생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나 노환으로 그 시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가 1953. 6. 29. 군에 재차 입대하여 만기 제대(전역증 확인, 군번: 9449672)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전쟁기간 중 1차로 군에 복무했던 시기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와¹⁸⁰⁾ 신승철이 가족 없이 집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⁸¹⁾ 이에,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1950. 12.~1951. 1. 기간에 경찰에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 희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및 자료가 없어 본 사건을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2) 판부면 서곡리 김영철 희생사건(다-10147, 1950. 12. 말경)

진실규명대상자 김영철(金永澈, 남, 42세)은 화전민들이 모여 살던 서곡리 용수골에 거주하며 산판일(산에서 나무베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전쟁 발발 후 피난하지 못하고 마을에 머물다 인민군 점령기에 마을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국군 수복 후 이를 이유로 판부지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구금·석방되었으나 1950. 12. 말경 다시 불려간 후 생환하지 못했다고 한다.¹⁸²⁾

당시 용수골은 외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다른 마을 주민과 교류가 없었고, 현재에도 당시부터 거주하던 자들이 없어 김영철에 대해 아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¹⁸³⁾

당시 상황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김영철이 여러 차례 지서에 불려간 정황으로 볼 때 그가 1950. 12. 말경 판부지서 경찰에게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 희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및 자료가 없어 본 사건을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서곡리 외동막 탐거리에 거주하던 미신청자 김영철은 의용군으로 참전했다 생환하였는데, 국군 수복 직후(1950. 9. 30.~1950. 10. 초경¹⁸⁴⁾) 군인에게 이를 이유로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¹⁸⁵⁾ 가해자는 당시 원주를 수복한 6사단 소속 군인으로 추정된다.

180) 참고인 홍○○은 1950. 12.~1951. 1. 청방으로 부산까지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81)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2. 5.)

18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 5. 23.)

183)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2. 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2. 5.)

184) 1950. 9. 30. 6사단 제3대대는 연대선발대로 원주로 전진한 후 복진하여 황성으로까지 진출하였고, 제2연대 제1대대는 10. 1. 원주 시내에 진입하여 흥천으로 진출하였다. 보병 제6사단, 『청성역사』, 1978, 158~167쪽.

18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2. 5.)

4.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의 희생사실 여부

진실규명대상자와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의 희생사실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거쳐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은 희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개별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찰자료 및 문헌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건의 실재 여부, 발생시기, 장소, 가해주체 관련 진술내용 등은 군사, 경찰사 등을 토대로 교차 확인했다. 아울러, 사건발생시기와 장소를 규명하기 위하여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 연행 시기, 시신수습 시기와 제사일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건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 시신을 목격했거나 시신수습 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이 존재할 경우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군경사건의 특성상 시신이 수습되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는 시신이 수습된 경우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 참고인 3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 28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8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2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19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표 7〉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이고, 〈표 8〉은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¹⁸⁶⁾

186) 〈표 8〉에서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진술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미신청자에 대해 진술했을 경우에도 참고인으로 간주하여 '진술자'란에 기재하였다. 한편, '제적등본'란에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신고', 진실규명대상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등재' 그리고 입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입수'로 기재하였다.

〈표 7〉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희생일 및 희생장소 (최종 확인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사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삼척군									
1	다-9470	박우두만 (남, 40~45세)	1950.3.경 봉화군 춘양면 천평국민학교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	윤○○ 정○○ (희생목격)	확인
	다-10504	권병오 (權炳五, 남, 32세)	1950.3.경 봉화군 춘양면 곡남이재 인근	-	제적등본 없음 (신청인 권옥순 제적 등본에 망부[亡父] 로 기재됨)	×	-	윤○○ (전문)	추정
	다-10506	박근덕 (남, 35세미만)	1950.3.경 삼척군 북평읍 북삼국민학교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	윤○○ (목격전문)	추정
2	다-6839	김덕삼 (金德三, 남, 70세)	1950.9.경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 을 앞산	-	1964.10.3. 원덕면 풍곡리 83	○	-	엄○○ (총성 들음 전문) 이○○ (전문)	확인
		엄계상 (嚴桂尙, 여, 61세)	1950.9.경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 을 자택	-	1964.10.5. 원덕면 풍곡리 83	○	-	엄○○ (총성 들음 전문) 이○○ (전문)	확인
		김도철 (金道哲, 남, 57세)		-	1950.5.25. 원덕면 풍곡리 83	○	-	엄○○ (총성 들음 전문) 이○○ (전문)	확인
		한치상 (韓致相, 남, 62세)	1950.9.경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 을 앞산	-	1962.12.28. 원덕면 풍곡리 77	○	-	엄○○ (총성 들음 전문) 김○○ 정○○ 이○○ (전문)	확인
		이상옥 (李相玉, 여, 59세)	1950.9.경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 을 앞산	-	1963.1.2. 원덕면 풍곡리 77	○	-	엄○○ (총성 들음 전문) 김○○ 정○○ 이○○ (전문)	확인

제 3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희생일 및 희생장소 (최종 확인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사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2	다-6839	김순례 (金順禮, 여, 34세)	1950.9.경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 마을	-	미신고	○	-	엄○○ 김○○ 이○○ (전문)	확인
		김△주 (김△주, 여, 30세)		-	1960.12.20. 원덕면 풍곡리 77	○	-	엄○○ (총성 들음 전문) 정○○ 이○○ (전문)	확인
		△△△ (한맹철 제수)	1950.9.경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 을 앞산	-	미등재	○	-	엄○○ (총성 들음 전문) 김○○ 정○○ 이○○ (전문)	확인
		홍옥금 (洪玉金, 여, 49세)		-	독해불가	×	-	엄○○ (총성 들음 전문) 김○○ 이○○ (전문)	확인
3	다-6612	김상범 (金常範, 남, 49세)	1950.9.28.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골목길	-	1956.7.30. 원덕면 장호리 301	○	음력 8.16.	김○○ 최○○ 강○○ 남○○ (전문)	확인
4	다-4556	송은실 (宋銀實, 남, 19세)	1950.9. 말~10. 초경 삼척군 하장면 역둔리 장거리 자택 앞	-	미신고	○	-	정○○ (총성 들음 시신목격) 김○○ 김○○ (전문)	확인
5	다-10354	임연식 (林連植, 남, 22세)	1950.11.22.경 삼척군 근덕면 교곡리 드릅재	-	1958.1.25. 노곡면 금계리 53	×	음력 10.12.	홍○○ 이○○ (전문)	확인
6	다-8807	김동형 (金東炯, 남, 27세)	1950.12월 말경 삼척군 삼척읍 정리항 앞바다	-	1961.9.12. 원덕면 장호리 299	×	-	남○○ 최○○ (전문)	확인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희생일 및 희생장소 (최종 확인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사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6	다-6838(1)	김옥이 (金玉伊, 여, 39세)	1950.12월 말경 삼척군 삼척읍 정라항 앞바다	-	1962.1.20. 삼척읍 남양리 129	×	-	김○○ (전문)	추정
7	다-6469	전일영 (全一瑛, 남, 29세)	1951.1.9.경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 백사장	-	1951.10.29. 원덕면 용화리 513	○	음력 12.2.	박○○ (시신수습) 정○○ 전○○ (전문)	확인
	다-8808	정귀연 (鄭貴然, 남, 37세)	1951. 1. 8~1. 9.경 삼척군 근덕면 팔송정 뒷산	-	1952.2.1.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491	×	음력 11.3.	김○○ 김○○ (전문)	확인
	다-6838	김진만 (金鎭萬, 남, 35세)	1951.1.8.경 삼척군 근덕면 팔송정 뒷산	-	미신고	○	음력 11.30.	김○○ 홍○○ (전문)	확인
		김봉하 (金鳳河, 남, 32세)	1951.1.8~1.9.경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 백사장 또는 팔송정 뒷산	-	1958.8.20. 원덕면 용화리 178	×	-	김○○ (전문)	추정
		이오봉 (李五鳳, 남, 26세)	1951.1.8~1.9.경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 백사장 또는 팔송정 뒷산	-	1950.11.15. 원덕면 용화리 144	×	-	김○○ 김○○ (전문)	확인
		윤옥출 (尹玉出, 여, 37세)	1951.1.8. 삼척군 근덕면 팔송정 뒷산	-	1961.8.10. 원덕면 용화리 25	×	-	김○○ 홍○○ (전문)	확인
전순덕 (全舜德, 남, 37세)	1951.1.8~1.9.경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 백사장 또는 팔송정 뒷산	-	1961.7.30. 원덕면 용화리 149	×	-	김○○ 김○○ (전문)	확인		

영월군

8	다-9420	정홍일 (丁洪一, 남, 53세)	1949.2.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금정골	-	미신고	○	-	정○ (경험) 신○○ 권○○ 김○○ 정○○ (전문)	확인
		김동굴 (金東屈, 여, 50세)	1949.2.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덕구리	-	미신고	○	-	정○ (경험) 신○○ (희생목격)	확인
		정춘식 (丁春植, 남, 20세)	1949.2.경 장소 불상	-	미신고	×	-	정○ 권○○ 김○○ 정○○ (전문)	확인

제 3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희생일 및 희생장소 (최종 확인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사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9	다-6240	이태인 (李泰仁, 남, 46세)	1950.10.26.경 북면 문곡리 두목골	-	1951.3.5. 사망으로 호주상계 (아들 이한규)	×	음력 9.16.	강○○ (전문) 엄○○ (연행목격)	확인
10	다-7924	김수규 (金壽圭, 남, 57세)	1950.10. 말경 수주면 무릉리 강변	-	1955.6.30. 취적(아들 김우진)	×	음력 4.14. (생일)	박○○ (전문)	추정
11	다-2878	엄창현 (嚴昌鉉, 남, 35세)	1950.11.24.경 장소 불상(황성경찰서)	-	1969.4.1. 사망으로 호주상계 (아들 엄태흥)	×	음력 10.18.	강○○ 이○○ (전문)	확인
원주군									
12	다-235	최병남 (崔炳南, 남, 47세)	1950.12. 말경 장소 불상(문막지서)	-	1951.8.10. 원성군 문막면 문막 리 257	×	-	이○○ (전문)	추정
		김보배 (여, 31세)	1950.12. 말경 장소 불상(문막지서)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		추정
13	다-10632	손어봉 (孫魚鳳, 남, 43세)	1950.12. 말경 양안치재(역전지서)	-	1950.8.10. 원주군 원주읍 단계 동 608	×	-	고○○ 변○○ 손영○○ (전문)	확인
		손상룡 (孫相龍, 남, 18세)	1950.12. 말경 양안치재(역전지서)	-	1950.9.2. 원주군 원주읍 단계 동 608	×	-		확인
황성군									
14	다-379	임상옥 (林相玉, 남, 31세)	1950.11. 초경 장소 불상(서원면 옥계리)	-	1965.9.14. 황성군 서원면 옥계 리 115	×	-	임○○ 김○○ (전문)	추정
15	다-9406.	정원영 (鄭元永, 남, 미상)	1951.3. 중순 청일면 유평리 자택	-	1951.2.13. 사망으로 호주상계 (아들 정인화)	○	-	김○○ 이○○ (전문)	확인

〈표 8〉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연 번	관련 사건번호	미신청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희생일 및 희생장소 (최종 확인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삼척군									
1	다-6839	박△△ (박중손의 부)	1950.9. 1.~25.경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631-1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박○○ (전문)	추정	
		△△△ (박중손의 모)		-		○		추정	
		△△△ (박중손 형수)		-		○		추정	
		박중손		-		○		추정	
2	다-10354	홍봉황 (洪鳳凰, 남, 42세)	1950.11.22.경 삼척군 근덕면 교곡리 드름재	-	미신고	×	홍○○ 이○○ (전문)	추정	
		김만배 (남, 25~26세)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추정	
3	다-6838	황규식 (黃奎植, 남, 32세)	1951.1.8~1.9.경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백사장 또는 팔송정 뒷산	-	미신고	×	김○○ 김○○ (전문)	추정	
영월군									
4	다-6240	목영근 (睦英根, 남, 40세 이상)	1950.10.26.경 북면 문곡리 두목골	-	1955.1.12. 사망으로 호주승계 (아들 목세균)	×	엄○○ (연행목격) 우○○ (전문)	추정	
		신승철 (辛承哲, 남, 29~30세)		-	부친 신태석 제적등본에 입 적된 신정자의 망부(亡父) 로 기재됨	×		추정	
		안양길 (安兩吉, 남, 40세 이상)		-	1949.7.20. 사망으로 호주승계 (아들 안정찬) 6·25사변으로 멸실 후 제재	×		강○○ 우○○ (전문)	추정
		△△△ (여, 28세기랑) (안양길 소실)		1950.10.26.경 서면지서	-	미확보			×
5	다-7924	김관수 (남, 23세기랑)	1950.10. 말경 수주면 무릉리 강변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박○○ 김○○ (전문)	확인	
		김관우 (남, 23세 미만)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추정	
		송갑현 (남, 40세기랑)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추정	
		도△△ (남)		-	미확보	×		신○○ (전문)	추정

제 3 권

연 번	관련 사건번호	미신청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희생일 및 희생장소 (최종 확인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6	다-2878	박△△ (박동수의 부)	1950.9. 말~10. 초경 수주면 부곡리 고둔치재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강○○ 엄○○ (전문)	추정
		허정 (남)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강○○ 엄○○ (전문)	추정
		이시우 (남)		-	제적등본 없음 (공문 회신)	×	강○○ (전문)	추정
원주군								
7	다-10147	김영철	1950.9.말~10. 초경 판부면 서곡리	-	미확보	×	김○○ (전문)	추정
8	다-10632	손수천 (孫壽天)	1950.12. 말경 흥업면 매지리 양안치재 (원주경찰서)	-	미신고	×	고○○ 변○○ 손○○ (전문)	확인
횡성군								
9	다-379	임상근	1950.9. 말~10. 초경 장소 불상	-	미확보	×	임○○ 김○○ (전문)	추정

5. 가해주체 및 희생이유, 가해의 불법성 여부와 책임소재

가. 가해주체 및 희생이유

신청인·참고인 진술 및 문헌자료를 토대로 한국전쟁 전후 시기 강원 남부지역 삼척군, 영월군, 원주군, 횡성군 등 4개 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를 판단하면 공비 토벌작전에 투입된 군, 지역을 수복하던 군, 수복 후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자를 색출하여 처리한 경찰서 및 관내지서 경찰 등이다.

피해자들은 공비토벌 과정,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경우도 있으나 가족이 입산자거나 국군의 부당한 지시 거부, 오인사격 등으로 희생당한 경우도 있다.

각 사건별 가해주체 및 희생이유는 다음의 <표 9>에서 정리하였다.

〈표 9〉 사건별 가해주체 및 희생이유

연도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성별·당시 나이)	가해주체	희생이유
삼척군						
1	다-9470	삼척군 상장면 혈리 박우두만·권병오·박근덕 희생사건	1950.3.경	박우두만 (남, 40~45세)	태백산전투사령부 군인	공무집행방해
	다-10504			권병오 (남, 32세)		빨치산 짐꾼
	다-10506			박근덕 (남, 35세 미만)		빨치산 짐꾼
2	다-6839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김덕삼 등 9인 희생사건	1950.9.경	김덕삼 (金德三, 남, 70세)	3사단 선발대원	빨치산 가족
				엄계상 (嚴桂尙, 여, 61세)		
				김도철 (金道哲, 남, 57세)		
				한치상 (韓致相, 남, 62세)		
				이상옥 (李相玉, 여, 59세)		
				김순례 (金順禮, 여, 34세)		
				김△주 (김△주, 여, 30세)		
				△△△ (한맹철 제수)		
홍옥금 (洪玉金, 여, 49세)						
3	다-6612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 김상범 희생사건	1950.9.28.	김상범 (金常範, 남, 49세)	3사단 헌병대원	부역혐의 (인민위원장)
4	다-4556	삼척군 하장면 역둔리 송은실 희생사건	1950.9. 말 ~ 10. 초경	송은실 (宋銀實, 남, 19세)	3사단 군인	오인사격
5	다-10354	삼척군 근덕면 교곡리 임연식 희생사건	1950.11.22.경	임연식 (林連植, 남, 22세)	국군 정훈부대원 노곡지서 경찰	부역혐의(분주 소 업무 협조)

제 3 권

연 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성별·당시 나이)	가해주체	희생이유
6	다-8807	삼척군 삼척읍 정라진항 김동형·김옥이 희생사건	1950.12. 말경	김동형 (金東炯, 남, 27세)	정라지서 경찰	부역혐의 (자위대장)
	다-6838(1)			김옥이 (金玉伊, 여, 39세)		부역혐의 (여맹부위원장)
7	다-6469	삼척군 근덕면 근덕지서 김진만 등 7인 희생사건	1951.1.8.~ 1.10.경	전일영 (全一英, 남, 29세)	근덕지서 경찰	부역혐의 (인민군 협조)
	다-8808			정귀연 (鄭貴然, 남, 37세)		부역혐의 (인민위원장)
	다-6838			김진만 (金鎭萬, 남, 35세)		부역혐의 (인민위원회)
				김봉하 (金鳳河, 남, 32세)		부역혐의
				이오봉 (李五鳳, 남, 26세)		부역혐의
				윤옥출 (尹玉出, 여, 37세)		
				전순덕 (全舜德, 남, 37세)		
영월군						
8	다-9420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정홍일 일가 희생사건	1949.2.경	정홍일 (丁洪一, 남, 53세)	태백산지구 토벌 군인	좌익혐의
				김동굴 (金東屈, 여, 50세)		
				정춘식 (丁春植, 남, 20세)		
9	다-6240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태인 희생사건	1950.10.26.경	이태인 (李泰仁, 남, 46세)	영월경찰서 경찰 쌍용지서 경찰 서면지서 경찰	부역혐의 (인민위원장)
10	다-7924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김수규 희생사건	1950.10. 말경	김수규 (金壽圭, 남, 57세)	수주지서 경찰	부역혐의 (인민위원장)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성별·당시 나이)	가해주체	희생이유
11	다-2878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엄창현 희생사건	1950.11.24.경	엄창현 (嚴昌鉉, 남, 35세)	횡성경찰서 경찰	부역혐의 (면사무소근무)
원주군						
12	다-235	원주군 문막면 문막지서 최병남 일가 희생사건	1950.12. 말경	최병남 (崔炳南, 남, 47세) 김보배 (여, 31세)	문막지서 경찰	가족의 월북 부 역혐의
13	다-10632	원주군 원주읍 단계동 손어봉 부자 희생사건	1950.12. 말경	손어봉 (孫魚鳳, 남, 43세) 손상룡 (孫相龍, 남, 18세)	역전지서 경찰	부역혐의 (세포위원장) 부역혐의
14	다-10147 관련 미신청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김영철 희생사건	1950.9.30.~ 10. 초경	김영철	국군	부역혐의 (의용군참전)
횡성군						
15	다-379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임상옥 희생사건	1950.11. 초경	임상옥 (林相玉, 남, 31세)	횡성경찰서 경찰	부역혐의 (마을반장)
16	다-9406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정원영 희생사건	1951.3. 중순경	정원영 (鄭元永, 남, 미상)	횡성수복 국군 (수복 부대 불명확)	국군지시 불응

나. 가해의 불법성 여부와 책임소재

본 사건은 강원남부지역 삼척군, 영월군, 원주군, 횡성군 등 4개 군에서 펼쳐진 군경의 토벌작전과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살해된 사건이다.

전쟁 전후 혼란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는 어려웠다고 해도, 당시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제한헌법¹⁸⁷⁾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발효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 상태는 아니었다.

187)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대한민국헌법』(1948) 제28조.

제 3 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경찰과 군인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했다.

희생자들은 입산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또는 실제로 좌익세력에게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응의 대가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좌익에 협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장한 경찰과 군인이 법적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행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¹⁸⁸⁾

본 사건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해자인 경우 1차 지휘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국군의 경우 토벌작전 및 해당지역 탈환 업무를 수행하던 지휘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군과 경찰의 폭력 행사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9. 2.경~1951. 3.경 강원남부지역(삼척군, 영월군, 원주군, 횡성군) 4개 군에서 군경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진실규명대상자 36명과 조사과정 중에 인지된 미신청자 21명 등 총 57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희생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확인(28명)

김덕삼(金德三, 다-6839), 김도철(金道哲, 다-6839), 김동굴(金東屈, 다-9420), 김동형(金東炯, 다-8807), 김상범(金常範, 다-6612), 김순례(金順禮, 다-6839), 김진만(金鎭萬, 다-6838), 김△주(金△珠, 다-6839), 박우두만(다-9470), 손상룡(孫相龍, 다-10632), 손어봉(孫魚鳳, 다-10632), 송은실(宋銀實, 다-4556), 엄계상(嚴桂尙, 다-6839), 엄창현(嚴昌鉉,

188) 당시 대법원 판례도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 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주민을 무차별 살해한 경찰 지휘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불법성을 확인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15호)

다-2878), 윤옥출(尹玉出, 다-6838), 이오봉(李五鳳, 다-6838), 이상옥(李相玉, 다-6839), 이태인(李泰仁, 다-6240), 임연식(林連植, 다-10354), 전순덕(全舜德, 다-6838), 전일영(全一瑛, 다-6469), 정귀연(鄭貴然, 다-8808), 정원영(鄭元永, 다-9406), 정춘식(丁春植, 다-9420), 정홍일(丁洪一, 다-9420), 한치상(韓致相, 다-6839), 홍옥금(洪玉金, 다-6839), △△△(한맹철의 제수, 다-6839)

○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추정(8명)

권병오(權炳五, 다-10504), 김보배(다-235), 김봉하(金鳳河, 다-6838), 김수규(金壽圭, 다-7924), 김옥이(金玉伊, 다-6838(1)), 박근덕(다-10506), 임상옥(林相玉, 다-379), 최병남(崔炳南, 다-235)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의 희생 확인(2명)

김관수, 손수천(孫壽天)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의 희생 추정(19명)

김관우, 김만배, 김영철, 도△△, 목영근(睦英根), 박중손, 박△△(박중손의 부), 박△△, 송갑현, 신승철(辛承哲), 안양길(安兩吉), 이시우, 임상근, 허정, 홍봉황(洪鳳凰), 황규식(黃奎植), △△△(박중손의 모), △△△(박중손의 형수), △△△(안양길의 소실)

○ 진실규명불능(4명)

김경준(金瓊俊, 다-1063), 김영철(金永澈, 다-10147), 신성준(辛性俊, 다-1063), 신학준(辛鶴俊, 다-1063)

2. 권고사항

진실규명된 사건에 대하여 화해를 위한 국가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공비토벌과 부역혐의자 처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것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희생자들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검토한 결과, 많은 경우 사망사실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국가는 본 사건의 민간인 희생 관련 내용을 정부의 공식 간행물, 역사교과서, 군·경찰 발간 자체 간행물, 각 지역 향토사 등에 추가하거나 잘못 기술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국가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 등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